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8년 4월 15일
1976년 4월24일 창간|월간|제361호
www.snua.or.kr

영예로운 수상을 축하합니다

관악대상 수상자와 함께 좌로부터 林光洙회장, 朴永浩(협력부문)동문, 尹世榮(참여부문)동문과 부인 邊金玉여사, 宋相現(영광부문)동문과 딸, 李長茂총장, 孫一根상임부회장 〈관련기사 3~4면〉

"천하의 俊才들아, 靑雲의 꿈을 펴라"

신입생 입학식에서 농생대 식물생산·산림과학부 張英晙군이 3천2백71명을 대표해 선서를 했다. 〈관련기사 16면〉

관악춘추

동창회와 동문들의 힘

총동창회는 2008년 총회를 열고 22대 회장에 林光洙회장을 연임시키고 올해 동창회의 모든 역량을 장학빌딩 건립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동문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은 2년만에 목표액 3백억 약정이 거의 이뤄지는 쾌거를 이뤘다.

'벽돌 한 장이라도…' 구호를 내걸고 추진한 장학빌딩은 林회장의 집념으로 진두지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동문들의 숙원인 장학빌딩을 훌륭하게 완수해 달라는 염원이 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다.

미래의 위풍당당한 건물이 가시화되면서 모금에 참여해 정성을 쏟아준 동문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 벽면 동판에 가득히 새겨질 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 동문사회가 지향하는 지표는 참여, 협력, 영광으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 관악대상의 이름으로 선정돼 왔다.

우리나라 민영방송의 초석을 세우고 방송문화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룩한 SBS 尹世榮회장은 참여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방송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 언론 학술지원과 미래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서울 디지털 포럼'을 창설해 세계 석학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 장학빌딩은 물론이고 법대 도서관 건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도 있다.

영광상의 宋相現교수는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국제사회에서 양식과 인권을 지키는 글로벌 법치주의 실천자로 인정받아왔다. 故 崔鍾賢회장의 모교사랑으로 각종 학술 및 연구기금을 출연하고 기념관 건립 등에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해온 SK(주)는 협력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총동창회는 서울대 동문 가족들을 위한 친목과 서울대인으로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역할은 세계 10위권의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야심찬 계획을 세운 모교에 뜨거운 관심과 후원을 하는 일이다.

2년 전에 李長茂총장이 인터뷰에서 인용했던 내용이 있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시사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가 평한 '주요대학 평가요소' 중 하나가 '동창회의 재정적 후원과 참여'라고 밝혔다. 명문대의 명성 뒤에는 강력한 동창회와 동문들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해 본다.

〈林炯斗논설위원〉

Inside 6~7 동창회·관악회 결산공고 | 10~11 동문을 찾아서(李承奎교수) | 13 서울대 가족(故 宋鍾旭동문) | 16~17 모교 소식 | 19 정년교수 프로필

느티나무광장

서울대의 봄은 오는가

曺 炳 喆
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春來不似春. 하도 진부한 표현이라 신물이 날 지경이다. 그럼에도 모두 이 말을 즐겨 쓰는 것은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봄다운 봄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현실을 너무나도 적확하게 그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는 그래도 5년마다 봄이 오건만 서울대에는 진정 봄이 온 기억이 없다.

눈 들어 관악을 보라 했지만 눈을 들기는커녕 언제나 눈을 내리 깔고 살아온 인고의 세월이 서울대의 역사였다. 국민의 정부 때도 그랬지만 참여정부 시절 서울대는 늘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날만 계속됐다. 작두 위를 걷는 것같이 아슬아슬했다. 폐교론이 시대의 당위인양 위세를 떨치니 숨을 쉬는 것조차 고마워해야 했다.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었다'가 과장법만은 아니었다. 다만 그 어둠의 시절에도 서울대가 한복판에 있었던 것은 참 신기했다.

李明博정권이 출범하고 처음 맞는 봄이다. 올해 봄은 서울대와 서울대인에게 어떤 봄일까를 물어본다. 일전에 모교 출신의 한 인사를 만났더니 "세상은 별반 변한 게 없지만 그래도 코 평수는 넓어졌다"고 말해 서로가 한바탕 크게 웃었다.

휴 하고 막힌 숨을 내뱉는다는 것만으로도 서울대인이 죄수였던 시절은 일단 지나갔나 보다 하고 안도는 한다. 그렇다면 서울대에 봄은 왔는가.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다들 봄이 왔다고 야단들인데 왜 서울대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을까.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 봄이 가면 겨울 오는 것도 자연의 순환법칙이다. 봄을 누려 보지도 못하고 겨울의 한풍을 맞게 되는 비운의 서울대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봄을 자연의 은총이나 신의 섭리에 맡겨 뒀다간 겨울은 봄의 뒷덜미를 움켜 채가기 마련이다.

서울대와 서울대인의 봄은 서울대와 서울대인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서울대는 봄의 창조주가 돼야 한다.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서울대가 곤경에 처할 때 외면하지 않으면 된다. 눈총까지 받아 가며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다. 서울대인의 단점은 단합력의 부족이라고 했을 때 비서울대인 한 분이 "아니다. 그게 진정 서울대의 장점이다"라고 한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머리 좋은 서울대인이 깡패처럼 패거리로 달려든다면 여타 대학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저 서울대가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서울대가 누명을 썼을 때, 서울대가 외로울 때 변호하고 따뜻한 눈길 한번 주면 된다. 모른 체하지 말자는 것이다.

관악시단

그 해 봄

金 貞 姬
(약학57-61)시인

학교 뒷산을 기어기어 넘어온 봄이
대학천에게 사열하는 개나리 마른 가지를
유황불로 화끈하게 태워버린 그날 오전
어디선가 데모의 함성이
꽃냄새처럼 바람 타고 달려와
꼭 닫아놓은 실험실 유리창을 두드렸다.
시험관으로 화학의 역사를 뒤적이던 친구들은
그 냄새 찾아가는 벌떼 되어 뛰어나갔다.
교정에는 적막이 몇 년 만의 폭설로 쌓이고
고사리손을 흔드는 미루나무와
이 나무 저 나무로 그네 뛰는 새소리만
그 큰 적막을 나와 함께 지키고 있었다.
그 해 봄의 일그러진 해도
지금까지 눈 감고 다니던 길을 잃었으므로
시계마저 땀 흘리며
긴 다리 짧은 다리로 절뚝거렸다.
스물한 배 스물두 배 늘어났던 시간이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
구급차의 고함소리가
깜깜한 밤에 그은 성냥불처럼 교정의 환한 어둠을 밝히고
교문 옆 수위실의 라디오는
무너지는 하늘을 받들러 간 친구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 주고 있었다.

동문칼럼

로스쿨을 둘러싼 걱정거리들

胡 文 赫
(법학68-72)
모교 법대 학장

내년 3월이면 이른바 로스쿨이 문을 연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법률가 양성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만큼 걱정도 많다. 잘못하면 실패할지도 모른다. 로스쿨에는 법령에 의한 온갖 족쇄가 채워져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대학별 최다 정원을 1백50명으로 못 박고 타 대학교 출신을 3분의 1 이상 선발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로스쿨로의 변환이 성공하려면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것이 로스쿨의 요체이다.

3백명의 학생을 받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대학 보고 1백50명만 가르치라고 짓누르는 것은 로스쿨의 의미를 망각한 처사이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로스쿨이 많이 생겨서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앞서 나가는 대학을 뒤로 잡아끌어서 지역 균형을 맞추는 것은 침대 길이에 맞춰 사람 다리를 자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서울대는 한국의 간판 로스쿨로 세계의 여러 명문 법과대학이나 로스쿨과 경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가 배출하는 법률가가 3백60여 명에서 1백50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불만이 아니다. 국내적으로는 공공부문에 진출할 유능한 법률가를 다수 배출하고,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다수 배출해 한국의 국익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타 대학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라는 것도 심각한 자율성 침해이다. 어느 대학교 출신이건 실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원하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로서는 유능하기만 하다면 타교 출신으로 1백% 채우는 것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타교 출신 쿼터 때문에 능력 있는 자교 출신이 역차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내년부터는 법과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모교 법대의 맥이 끊기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이 많다. 그러나 학교 체제가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바뀔 뿐, 서울대의 법학교육기관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서울대 법대는 1백10여 년 전에 설립한 법관양성소에서 출발해 여러 차례 윤회를 거듭해 면면히 국립법학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전통을 이어왔다. 새로 로스쿨이 되더라도 이 오랜 전통이 끊기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새로 태어나는 로스쿨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있다. 훌륭한 교수진을 새로 모셨지만 기금교수 신분이다. '기금'이 있어서 기금교수로 모신 것이 아니다. 로스쿨을 잘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총장님의 결단으로 돈을 꿔다 모신 것이다. 정부에서 교수정원을 주지 않으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시설은 돈이 없어서 겨우 구색을 맞출 상황이다. 지방대학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우리 대학 시설을 둘러보고는 동정심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로스쿨을 하느라고 교수들이 고생은 몇 배로 해도 봉급은 그대로일 것이다. 재정지원이 풍부한 사립대에서 우리 교수들에게 유혹의 손을 뻗칠지도 모른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돈을 마련하라면서 예산을 주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언제 2류, 3류 로스쿨로 전락할 지 모른다.

로스쿨로의 전환은 서울대 법학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기회도 되지만 잘못하면 추락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제도를 재정비하고 학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새로 태어나는 로스쿨이라는 꿈나무는 동문 여러분이 사랑을 듬뿍 줘야 튼튼하게 자랄 것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 행 인 林 光 洙
편 집 인 孫 一 根
편집주간 許 瑄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02)702-2233 팩스(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鎭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璨, 丘月煥, 宋鎭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曺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趙在鏞, 金鎭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 집 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정기총회 성황 … 8백여 동문 화합의 한마당

제22대 회장에 林光洙회장 재선출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정기총회 겸 제10회 冠岳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방송인 兪靜雅(사회85-89)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학의 평가가 그 나라의 국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시대에 李長茂총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교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조금씩 부여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화와 법인화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로스쿨 현안이 잘 마무리돼 기금 증대를 위한 발전위원회가 잘 가동된다면 모교의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빌딩에 대해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동창회 땅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인접상가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입주자와 이사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지하철공사와 지하굴착공사의 공법문제가 일주일 안에 해결되고 3월말에 굴착작업이 시작되면 공사 진척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개회사 요지 참조〉

모교 李長茂총장은 축사에서 "작년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많은 명문대를 방문해 보니 이제 대학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제간 지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을 국제화하며 대학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교 역시 해외 대학과의 국제교류 수가 5백50개가 넘은 가운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개원과 6월에 설립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해 연구와 산학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교에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0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부문에 SBS 尹世榮(행정56-61 본회 부회장)회장, 협력부문에 SK(주), 영광부문에 국제형사재판소 宋相現(법학59-63 모교 명예교수)재판관이 각각 수상했다. 〈공적 및 수상소감 4면 참조〉

이날 협력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SK(주)를 대표해 朴永浩(상학67-71)사장이 대리로 수상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수상자 선정 경과보고에서 "鄭道傳의 '三峯集'에 '무릇 벌을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의 노여움이나 원망으로 줘서는 일벌백계가 될 수 없고, 상 또한 공정한 기준으로 주지 않으면 권선징악이 될 수 없다'고 했듯이 이 관악대상이 주고 싶어서 주는 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공동문에 대한 공로패 시상식에서 제2대 관악언론인회장 및 본보 논설위원으로 헌신한 故 南仲九(정치58-64 前화정평화재단 이사장)동문을 대신해 부인 金定姬(영문65-69)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22대 회장에 재선출된 林光洙회장이 자랑할 수 있는 동창회관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동창회 2007년도 결산 의결

성악가 金秀貞동문의 축하공연

이날 안건 심의에서 동창회 회칙 제8조(임원의 선임)와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따라 李相赫(행정54-58)부회장의 상임이사회 합의 추대 결과 보고 겸 동의와 河權益(의학57-63)의대동창회장의 재청 발언 등에 의거, 제22대 회장에 林光洙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으며 朴英俊·朱成民감사를 재선임했다.

또 부회장단 구성은 林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林光洙회장은 수락인사에서 "50년간의 건설경험을 최대한 살려 동문들께서 기대하는 수준높고 자랑할 수 있는 동창회관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창회보가 서울대인의 의견이 집약되고 애교심으로 승화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서울대 동문이 되도록 하는 대화의 광장으로 잘 가꿔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만찬에 앞서 모교 權彝赫전임총장은 건배사에서 "오늘 연임되신 林光洙회장님께서 동창회를 멋있게 이끌어 나가고 李長茂총장께서 모교의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다"며 두 동문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어 "윌리엄 헨리는 'Invictus'라는 시에서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했다"며 "동창회장님과 총장님, 관악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우리 서울대인 모두가 자기 운명을, 그리고 모교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다함께 일어나서 '나가자!'를 힘차게 외치자"고 말했다.

만찬 중 許 瑄사무총장이 본회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2007년도 결산과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업무를 요약·보고했다.

이어 朴英俊감사가 2007년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했으며, 만장일치로 동창회 2007년도 결산을 의결했다.

한편 冠岳大賞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美줄리어드 대학원을 졸업한 金秀貞(성악87-91 안양대 성악과 교수)동문이 李殷瑛(기악81-85 모교 강사)동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 오페라 중 '줄리엣의 왈츠',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불렀다.

이날 참석자들은 본회 姜信浩고문을 비롯해 (재)서울대 발전기금, 쌍용자동차에서 각각 협찬한 도서(생활한자), 포켓용 돋보기, 머니클립을 기념품으로 받았다. 〈表〉

林光洙회장 개회사 〈요지〉

새 정부의 교육정책 중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모교의 명운이 달린 국제화, 법인화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로스쿨 등 현안이 잘 마무리되고, 작년에 새롭게 출범한 발전기금 증대를 위한 발전위원회가 잘 가동된다면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李長茂총장님과 모교 교수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동문님들의 유례없는 성원과 관심 속에서 장학빌딩 건립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뤄진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동창회의 역점사업인 장학빌딩 건립사업은 기금 모금운동 2년 만에 당초 목표 모금액을 거의 달성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출연해 주신 18분과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4천8백여 동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전 동문적 모금운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그 이름이 명예의 전당 벽면 동판에 가득히 새겨질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동창회 땅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인접상가와의 소송에서 승소,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법원에서 실시하고 입주자와 이사에 대한 문제를 협의 중이며 지하철공사와 지하굴착공사의 공법문제가 일주일 내에 해결이 될 것이므로 3월말까지는 본격적으로 굴착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사 진척은 활발하게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올해에도 서울대 가족들의 친목과 서울대인으로서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창회보는 동문 상호간 의견교환의 가교역할은 물론, 모교에 대한 동문과 재학생들의 제언도 충실히 담는 종합적인 매체로 더욱 성숙해 나가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해외와 국내 지부를 방문하고자 하며 특히 해외 유수대학의 동창회와의 제휴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갈 작정입니다.

우리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교가 든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대인으로서 갖춰야할 덕목인 예의와 품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을 잊지 맙시다.

제10회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참여부문 SBS 尹世榮회장

▲56년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해 61년 졸업했다. 尹회장은 태영 회장을 거쳐 90년부터 SBS 회장으로 있으면서 민영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서암학술장학재단 이사장, 금강장학회 이사장, SBS 문화재단 이사장을 통해 장학 및 문화지원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특히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하는 등 모교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SBS 프로농구단을 창설하고 한국농구연맹 총재, 대한골프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체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건설부 장관 표창, 동탑 산업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방송언론부문) 등을 받았다.

▲尹동문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 50년은 격동의 시기였고, 저에게도 산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시련의 연속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교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잊어본 적이 없으며,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면서 모교에서 가르친 대로 원칙을 지키고 도덕을 중시하는 생활을 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회고했다.

이어 "20년 전 민영방송인 SBS를 창업해 공영성과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언론사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노력하며 지내왔는데, 비판도 받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理想대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그러이 헤아려달라"고 전하면서 "저물어 가는 나이에 사회생활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 동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며 저에게 베풀어주신 많은 동문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협력부문 SK(주)

▲SK(주)는 지난 58년 국내 최초로 섬유수출의 길을 열고 폴리에스터 원사를 생산하는 등 한국경제와 맥을 같이 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두기업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

SK(주)는 국가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에부터 차세대 핵심사업 분야인 종합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또 현재 국내 화학산업을 이끌어 가며 유전개발 및 탐사사업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전임 회장인 故 崔鍾賢(농화학50입)동문의 모교 사랑 정신을 계승해 모교에 많은 재정적 지원과 산학협동체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동안 선경기념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게스트하우스, SK텔레콤 연구동 등을 건립했으며, 사회대·경영대·공대에도 기금을 출연하는 등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현 崔泰源회장도 모교 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면서 기술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영광부문 국제형사재판소 宋相現재판관

▲59년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해 63년 졸업했다. 64년 모교 사법대학원을 졸업하고 美튤레인대와 英케임브리지대를 거쳐 美코넬대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취득했다. 72년부터 2007년까지 모교 법대 교수로서 30여 년간 후학 양성에 헌신하며 수많은 법조인을 길러냈다.

국제 거래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국제거래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宋동문은 지난 2003년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돼 국제사회의 양심과 인권을 지켜왔으며 2006년 임기 9년의 재판관으로 재선출됐다.

또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부회장,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쳐왔다.

▲宋동문은 수상소감을 통해 "제게 주신 이 큰 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국제기구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는 동문 모두를 격려하고, 앞으로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을 배웠고 세계 정의와 평화를 위해 법학도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선임돼 전쟁이나 침략을 예방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집단학살이나 각종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해 인류의 양심을 수호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러한 국제 업무 환경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극복하고 법조윤리를 엄격히 지키면서도 새로운 국제 형사법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모교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교는 이처럼 저에게 원대한 꿈을 심어주고 인류애를 길러준 고향이라 할 수 있고, 동창회는 결속과 친목을 통해 울타리를 쳐준 따뜻한 안식처와 같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모교의 전통과 명예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서울대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몸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역대 관악대상 수상자 명단〉

차례	부문	수 상 자	입학/졸업년도	직 위	시 상 일
1회	참여	李丙俊	경제55-59	세아스틸 아메리카 회장	1999.3.13
	협력	洪性大	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영광	任志淳	물리70-74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2회	참여	병원간호부 (李愛珠)	간호65-69	모교 병원 간호부장	2000.3.17
	협력	鄭晳圭	화학공학48-52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영광	李龍兌	물리53-57	前삼보컴퓨터 회장	
3회	참여	공대동창회 (林光洙)	기계공학48-52	공대동창회장	2001.3.16
	협력	孫吉丞	상학59-63	SK그룹 고문	
	영광	金丁龍	의학53-59	한국간연구재단 이사장	
4회	참여	吳仁錫	행정58-62	필립인베스트먼트 회장	2002.3.15
	협력	孫京植	법학57-61	모교 발전위 위원장	
	영광	黃禹錫	수의학72-77	前모교 수의대 교수	
5회	참여	李吉女	의학51-57	경원대 총장	2003.3.21
	협력	(주)포스코 (姜昌五)	금속공학63-71	포스코 사장	
	영광	趙完圭	생물48-52	모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6회	참여	姜信浩	의학46-52	동아제약 회장	2004.3.19
	협력	卞大圭	제어계측79-83	휴맥스 사장	
	영광	文信容	의학74졸	모교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7회	참여	金讚漵	치의학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2005.3.18
	협력	朴喜載	기계설계79-83	SNU프리시젼 사장	
	영광	曺秀美	성악81입	성악가	
8회	참여	金殷宗	경제59-63	뉴프라이드그룹 회장	2006.3.17
	협력	金炯珠	토목공학46-50	삼안코퍼레이션 회장	
	영광	趙長熙	전자공학55-60	가천의과학대 석학교수	
	해외	吳興祚	치의학56-61	재미동창회 7대 회장	
9회	참여	金道昶	법학43-47	변호사	2007.3.16
	협력	申明珪	생물교육48-54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영광	潘基文	외교63-70	유엔 사무총장	
10회	참여	尹世榮	행정56-61	SBS 회장	2008.3.21
	협력	SK(주) (朴永浩)	상학67-71	SK 회장	
	영광	宋相現	법학59-63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1개 단체·9명 추천후보 심사

관악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孫一根)는 지난 3월 5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19층 목련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10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참여부문에 SBS 尹世榮(행정56-61)회장, 협력부문에 SK주식회사, 영광부문에 국제형사재판소 宋相現(법학59-63)재판관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추천된 1명(운영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전년도 후보자 중 수상치 못한 후보자는 자동 추천)을 포함해 1개 단체와 9명의 동문이 관악대상 후보에 올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1개 단체와 2명의 동문이 최종 선정됐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운영위원장, 白文基·尹勤煥·朴熙伯·李相周·徐桂淑·南正鉉·孫京植·河權益·洪性大·金鳳九·李炯均·朴英俊·辛鉉雄·金一燮·金仁圭·成樂寅·許 瑄운영위원이 참석했다. 〈南〉

본회·관악회 상임이사회

22대 이사 8천7백명 선임

'과학기술혁신과정' 준회원 영입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및 지방지부 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제152차·관악회 제10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동창회 예산과 관악회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許 瑄사무총장은 "지난해 회비 12억1천9백만원을 포함해 찬조금, 회보 광고료 등을 통해 총 22억6천7백만원의 수입을 올려 1억9천6백만원(기금전출 전)의 당기순이익을, 관악회는 수입부문 81억6천9백만원, 비용부문 20억9천9백만원으로 결산을 마쳐 총 60억7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창회와 관악회 기금을 합해 2백59억원의 예치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2004년 대비 63억원이 증대된 실적이다. 〈**동창회·관악회 결산 6~7면 하단 참조**〉

林光洙회장은 장학빌딩 보고에서 "10억원 이상 거액 출연동문이 18명이나 되고 그 밖의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금모금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감해 가고 있다"며 "공사현장에서도 인접상가와의 소송에서 승소 후 철거집행을 앞두고 입주자와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중이라 곧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창회 회칙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제22대 회장과 감사 추대에 대해 협의한 결과, 참석자 대표로 李相赫부회장이 "이미 장학빌딩 건립사업과 기금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차제에 그동안 열성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오신 林光洙회장께서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세계 최고의 장학빌딩을 완성할 수 있도록 22대 회장에 추대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만장일치로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동창회 회칙 제5조 제2항(준회원은 전신을 포함한 각 대학(원) 중퇴자 및 단기연구교육과정 수료자로 한다)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부설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SPARC)'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승인했으며, 회칙 제8조 제2항(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에 따라 추천된 8천7백명을 제22대 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지난 3월 17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19층 목련실에서 열린 관악회 제104차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李吉女이사, 金一燮감사를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장학빌딩 기금 출연

嚴秉潤동문 1억2천만원

지난 3월 4일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세림테크 嚴秉潤(외교60-64)회장(사진)이 6천만원을 추가로 쾌척해 '嚴秉潤특지장학회' 명의로 총 1억2천만원의 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모교 발전기금으로 6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는 嚴동문은 현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沈英輔·柳熙春동문 각각 1천만원 이상

지난 3월 25일까지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沈英輔(의학55-61)前늘푸른외과의원 정형외과 원장이 1천2백만원, 한일이화 柳熙春(상학49-55)회장이 1천만원을 출연했다.

장학빌딩 건립 후 기금장학회가 설립되며, 기금을 출연한 동문이 직접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만평

李 元 馥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법조계 동문 환영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3월 12일 대전시내 한정식당 '삼정'에서 李太云(법학68-72)대전고등법원장, 金敬鍾(법학73-77)대전지방법원장 등 새로 부임한 법조계 동문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다.

吳應準회장은 환영사에서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역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한 뒤 "작년에 모교가 세계대학 평가에서 51위를 기록하는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동문들이 모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되돌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조계 동문 20명을 비롯해 충청대학 鄭宗澤(행정54-58)학장, 趙容武(법학60-64)변호사, 충남대 宋容浩(건축70-78)총장, 유성개발 姜殷模(외교78-82)대표, 선양주조 金光植(명예회원)사장 등이 참석했다.

朴明潤특지장학회

대학원생에 연구비 전달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이사장은 지난 3월 28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朴明潤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朴明潤이사장은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洪漢娜(보건학전공)양과 李性昊(환경보건학전공)군에게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朴이사장은 지난 99년 12월 본회에 5천만원을 출연해 매년 모교 보건대학원 재학생 2명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南〉

좌로부터 成相哲병원장, 金勇一동문 부부, 朴重信(朴孃實동문 장남)교수, 朴熙伯동문 부부, 河權益회장

의과대학동창회

朴熙伯동문 등 3명 함춘대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지난 3월 26일 서울 소피텔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9회 함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朱槿源·權彝赫명예교수, 李吉女명예회장, 河權益회장, 成相哲원장을 비롯해 2백50여 동문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함춘대상 수상자로 학술연구부문에 을지대 金勇一(55-61)명예총장, 의료봉사부문에 박산부인과 朴孃實(54-60)원장, 사회공헌부문에 박희백정형외과 朴熙伯(51-57 본회 부회장)원장을 선정해 상패와 메달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의사들의 민족정신과 사회봉사의식을 고양하는데 귀감이 된 41학번 金敎命·金鍾鳳·權彝赫·鄭聖璋·李湘一·林光世동문에게 현창패를 수여했다.

그밖에 지난해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쓴 崔仲煥(76졸)동문에게 공로패를, 金周一(44-48)·金鍾禧(50-56)·金明埈(57-63)·金大成(64-70)·金聖德(65-71)동문과 서울시 서초구지회 등 11개 단체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창회 예·결산 보고를 통해 지난해 회비 1억6천8백만원 등 4억6천1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예치된 기금은 5억1천6백만원이라고 밝혔다. 동창회 산하 학술연구재단은 7억1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모교 내과학교실 李弘揆(62-68)교수와 약리학교실 徐維憲(67-73)교수가 '한국인의 기원과 현대질병-유전학적 추적', '두뇌장수학과 치매'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정치·외교학과동창회

'한국 정치' 조찬 강연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洪聖穆)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밸뷰룸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張勳(정치81-85)교수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金玟甸(대학원88-90)교수가 연사로 나와 '한국정치 어디로 가는가'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동창회는 분기별로 시의에 맞는 강연자와 주제를 선정해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음악대학동창회

64학번 1천만원 출연

음악대학동창회(회장 徐桂淑)는 지난 3월 3일 서울 중구 뉴서울호텔 ROOM201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원로 金玉子(성악49졸)·白樂皓(기악46-52)·金英淑(기악48-52)동문을 비롯해 徐桂淑회장, 모교 음대 鄭台鳳학장 등 70여 동문이 참석해 동창회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올해 졸업 40주년을 맞이한 64학번 동기회(회장 孫菊任)가 1천60만원을 모아 동창회 기금으로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좌로부터 孫菊任동문, 김정섭 장학생, 徐桂淑회장, 조용경·박성운 장학생

徐桂淑회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모교 학장 축사, 2007년도 사업보고 및 2008년도 사업계획보고, 장학금 수여, 만찬, 빙고게임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동창회는 세 차례의 회장단 회의, 분기별 골프대회, 회보 발간, 총동창회 CD제작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으며 올해도 이와 같은 행사에 3천6백여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단체나 개인들이 음악회 등에서 음대 동창회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총회 보고에 이어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했으며 만찬 후 빙고게임을 즐기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鄭台鳳학장은 이날 모임에서 "음악대학 기금 마련을 위해 '음대 프렌즈(Friends)'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음대 프렌즈'는 일종의 음악대학 후원 제도로,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하면 매년 음대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鄭학장은 "모교 학생들로 이뤄진 오케스트라, 오페라단의 실력은 기성 연주단과 견줘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후원인이 되면 모교도 돕고 더불어 양질의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ROTC동문회

金鍾燮회장 선출

ROTC동문회(회장 梁在鉉)는 지난 3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삼익악기 金鍾燮(사회사업66-70, 8기·본회 부회장)회장을 선출했다. 또 새 정부에 입각한 보건복지가족부 金聖二(사회사업 65-69, 7기)장관, 외교통상부 柳明桓(행정66-70, 8기)장관, 청와대 柳佑益(지리67-71, 9기)대통령실장 등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洪宗浩전임 회장, 梁在鉉회장,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ROTC교수회 金尙均회장, ROTC중앙회 金奎台회장 등 1백여 동문이 참석해 신임 회장과 입각한 동문들을 축하했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짧게 취임 인사한 金鍾燮회장은 삼익악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으며 본회 장학빌딩 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동문회는 이날 '자랑스런 동문 101 HONOR's'패를 제작해 金聖二·柳明桓·柳佑益동문에게 증정했다.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통일부 金夏中(중문65-69, 7기)장관과 문화재청 李健茂(고고인류65-69, 7기)청장도 ROTCian이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金鍾燮회장 체제의 동문회가 더욱 성숙할 것으로 확신하며 '행동하는 지성인'을 표방하는 ROTC 동문들이 새 정부에서 멋진 활약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올해 등산대회(4월·10월), 골프대회(5월), 회보발간, 임원 워크숍(7월), 학무제 지원, 리더십캘린더 제작 등의 사업에 1억4천여 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南〉

2007년도

동 창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3,147,966,782	**부채**		94,261,597
1.유동자산		3,143,967,317	1.유동부채		60,933,095
(1) 당좌자산		3,143,967,317	1) 미지급금		41,584,999
1) 현금		1,831,748	2) 예수금		19,348,096
2) 보통예금		3,070,809,970	2.비유동부채		33,328,502
3) 미수수익		56,100,509	1) 퇴직급여충당금		33,328,502
4) 미수금		0			
5) 선납세금		15,225,090	**자본**		3,053,705,185
(2) 재고자산		0	1.자본금		4,161,271
2.비유동자산		3,999,465	1) 기본금		4,161,271
(1) 투자자산		255,750	2.자본잉여금		0
1) 지급보증금		255,750	3.자본조정		0
(2) 유형자산		3,743,715	4.이익잉여금		3,049,543,914
1) 비품	78,796,691		1) 미처분이익잉여금		3,049,543,914
감가상각누계액	(75,052,976)	3,743,715	※당기순이익	35,427,375	
합 계		3,147,966,782	합 계		3,147,966,782

손 익 계 산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1. 매출액		489,840,525	13) 친목사업비	185,165,721	
1) 광고수입	489,840,525		14) 지원사업비	112,438,378	
2.매출원가		848,220,292	15) 조직강화비	553,623,231	
1) 간행물비	848,220,292		16) 사무비	28,395,982	
3.매출총손실		358,379,767	17) 예치금기금전출	161,109,363	
4.판매관리비		1,222,681,336	5.영업손실		1,581,061,103
1) 직원급여	111,372,500		6.영업외 수익		1,777,597,843
2) 상여금	29,750,000		1) 수입이자	140,271,579	
3) 제수당	20,879,880		2) 찬조금수입	403,520,170	
4) 복리후생비	7,941,780		3) 회원회비	1,219,054,152	
5) 여비교통비	11,815,466		4) 잡수입	14,751,942	
6) 세금과 공과금	12,446,260		7.영업외 비용		2
7) 감가상각비	3,966,507		1) 외환차손	0	
8) 보험료	6,639,110		2) 예치금기금전출	0	
9) 회의비	111,056,436		3) 잡손실	2	
10) 지급수수료	10,610,598		8.법인세차감전이익		35,427,375
11) 잡비	2,031,547		9.법인세 비용		
12) 전산화비용	14,547,940		10.당기순이익		35,427,375

위와 같이 공고함

2008. 3.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간호대학동창회

신입회원 환영회·장학금 수여

"후배들아 환영한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지난 3월 19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열린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李倫京) 정기총회는 신입회원과 선배 동문들의 만남으로 따뜻한 기운이 물씬 풍겼다.

이날 참석한 선배 동문들은 따뜻한 포옹과 함께 장미 한 송이를 전달하며 60여 신입회원의 동창회 입회를 환영했다.

박정인(04-08)동문은 "어머니 연배의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뜻깊은 환영 인사를 받게돼 얼떨떨하기도 하지만 너무 따뜻하고 좋았다"며 "비록 나이 차이는 있지만 같은 캠퍼스의 추억을 공유한 동문이란 생각으로 동창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李倫京회장은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역시 동창회가 젊어질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다.

동창회는 이날 신입회원 가운데 우수한 성적과 적극적인 교내 생활로 모범을 보인 노현성(04-08)·박정인 동문에게 각각 간호대학동창회장상과 총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또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올해 새로 단체장을 맡은 서울시 간호사회 朴誠愛(66-70)회장, 간호과학회 崔明愛(66-70)차기회장, 병원수술간호사회 徐英卿(74-78)회장, 병원간호사회 朴光玉(75-79)회장, 병원중환자간호사회 趙庸愛(80졸)회장 등을 축하했다.

동창회는 올해 야유회·벼룩시장(6월), 졸업 30·40·50주년 동문 모교 방문 행사(10월), 모교 지원, 송년의 밤(12월) 등의 사업에 3천9백여 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AIC동창회

全聖喆동문 특별강연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敬俊)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정기총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金日洙명예회장, 李敬俊회장을 비롯해 모교 행정대학원 崔炳善원장 등 1백20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열린 정책세미나에는 세계경영연구원 全聖喆(정치69-73)이사장이 연사로 나와 '기업경영의 글로벌스탠더드'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총회 결산보고 결과 지난해 회비,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1억6천9백만원(이월금 8천만원 포함)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9천7백만원을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은회(5월), 임원회의(6회), 업체탐방(5월·10월), 골프대회(5월·10월), 정책세미나(9월·11월)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임학동문회

봄맞이 식목 행사 가져

수원임학동문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3월 22일 경기도 광주 모교 태화산 학술림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鄭潤煥회장을 비롯해 모교 농생대 朴悳雨학장, 李宇新학술림장 등 70여 동문 가족들이 참석해 밤나무 심기와 만찬을 즐기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특히 08학번 새내기 1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선배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부산지부 마로니에클럽

새 회장에 金進暎동문

부산지부동창회 마로니에클럽(회장 安智煥)은 지난 3월 25일 부산시 서면 터존 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 金進暎(중문75-79)동문을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한겨레치과 金秉基(치의학77-83)원장, 감사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金永椿(임학77-83)관리사업소장을 각각 선임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蔡賢嬌 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캔버스에 수채, 70×100cm, 2003.

〈작가약력〉

▲90~94년 모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회
▲96년 동아미술제, 대한민국미술대전
▲99년 회화와 도예의 아름다운 만남, 카드 일러스트레이션전
▲00년 서울대학교와 새천년, 10회 정담미술제
▲03~07년 혼울회 정기전
▲현재 서양화가, 혼울회 회원

동숭클럽

宋常熙회장 재선임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숭클럽(회장 宋常熙)은 지난 3월 14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에서 3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결산보고, 임원 개선,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결산보고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회, 여행, 등반대회, 정기포럼, 송년회 등의 사업 명목으로 4천4백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宋常熙회장 1천7백만원, 李永吉부회장 5백만원, 金大起부회장 3백50만원, 裵吉勳 전임 회장 3백만원 등 10여 명의 동문들이 거액을 찬조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宋常熙회장이 유임돼 앞으로 1년 더 동기회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다.

동숭클럽은 올해 등산, 국내외 여행, 문화행사 참여 등 친목 활동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총회 후 이어진 포럼에서 한림대 영문학과 林惠順(언어65-69) 교수가 '영어 속의 외래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南〉

2007년도

(재) 관 악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25,469,991,268	**부채**		1,183,286,140
Ⅰ.유동자산		22,692,258,400			
(1)당좌자산		22,692,258,400	Ⅰ.유동부채		4,330,150
1.현금및현금성자산	15,841,956		1.미지급금	2,896,600	
2.미수수익	542,061,059		2.예수금	1,433,550	
3.미수금	420,360		3.단기차입금		
4.예치금	21,952,120,563				
5.부가세대급금	45,830,440		Ⅱ.비유동부채		1,178,955,990
6.선납세금	135,984,022		1.퇴직급여충당금		0
(2)재고자산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1,178,955,990	
Ⅱ.비유동자산		2,777,732,868			
(1)투자자산		910,000,000			
1.투자유가증권	910,000,000		**자본**		24,286,705,128
(2)유형자산		1,865,930,196			
1.토지	624,290,410		Ⅰ.자본금		11,436,309,320
2.건물	0		1.기본금	11,313,735,342	
감가상각누계액	0		2.기본잉여금	122,573,978	
3.구축물	0				
감가상각누계액	0		Ⅱ.자본잉여금		0
4.기계장치	0				
감가상각누계액	0		Ⅲ.자본조정		0
5.차량운반구	36,915,470				
감가상각누계액	33,332,400		Ⅳ.기타포괄손익누계		0
6.비품	81,716,068				
감가상각누계액	(80,552,164)		Ⅴ.이익잉여금		12,850,395,808
7.건설 중인 자산	1,236,892,812		1.미처분 이익잉여금	12,850,395,808	
(3)기타비유동자산		1,802,672	※ 당기순이익	6,078,945,193	
1.전신전화가입권	1,802,672				
합 계		25,469,991,268	합 계		25,469,991,268

손 익 계 산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Ⅰ.매출액		0	17.사무용품비	1,004,320	
1.임대료수입	0		18.소모품비	26,369,960	
2.유지료수입	0		19.지급수료	13,061,360	
Ⅱ.매출원가		0	Ⅴ.영업손실		818,762,520
Ⅲ.매출총이익		0	Ⅵ.영업외 수익		8,169,798,712
Ⅳ.판매비와 관리비		818,762,520	1.이자수익	888,280,231	
1.직원급여	27,620,000		2.배당금수익	2,300,000	
2.상여금	12,131,000		3.단기투자자산평가익	37,680,360	
3.제수당	6,314,660		4.유가증권처분익	15,485,346	
4.잡급	3,000,000		5.유형자산 처분이익	713,382,630	
5.퇴직급여	27,234,973		6.찬조금수입	6,411,226,084	
6.복리후생비	1,898,360		7.잡이익	101,444,061	
7.여비교통비	4,000,000		Ⅶ.영업외 비용		1,272,090,999
8.접대비	0		1.이자비용	42,041	
9.통신비	7,763,707		2.목적사업준비금전입	1,247,271,546	
10.수도광열비	8,348,597		3.전기오류수정손실	23,995,200	
11.세금과공과금	91,762,400		4.유가증권처분손실	0	
12.감가상각비	576,960,293		5.유가증권평가손실	0	
13.수선비	0		6.잡손실	782,212	
14.보험료	1,572,030		Ⅷ.법인세차감전이익		6,078,945,193
15.차량유지비	4,746,760		Ⅸ.법인세 등		0
16.회의비	4,974,100		Ⅹ.당기순이익		6,078,945,193

위와 같이 공고함

2008. 3. .

(재)관악회 이사장 林 光 洙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모교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 유도”

약학대학동창회 李世榮회장
(삼익제약 회장)

지난 2월 22일 약학대학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삼익제약 李世榮(약학57-61)회장이 추대됐다. 신임 李회장은 35년 전 삼익제약을 설립해 어린이 한방영양제 ‘키디’, 생약성분 감기약 ‘마파람F’ 등을 히트시키며 천연의약품 대표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오랫동안 동기회장을 맡아 ‘57학번 동기회’를 약대동기회 가운데 가장 끈끈한 모임으로 만들기도 했다. 지난 3월 10일 서울 숭인동에 위치한 삼익제약 본사에서 李회장을 만나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취임사에서 ‘아마추어 회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동창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유능한 부회장단 구성이 관건인 것 같아요. 활성화는 소수의 열정적인 몇 분이 주도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부회장단 구성만 잘 되면 무리 없이 이끌어 갈거라 봅니다. 현재 상임부회장에 申英浩(제약67-71)동문과 총무위원장에 鄭錚基(약학83졸)동문을 선임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이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동창회 소개를.

“1957년에 설립돼 현재 6천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년 8천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홈커밍데이, 바둑·테니스대회, 약학교실, 회보발간, 모교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천만원은 재학생 장학금을 위해 사용됩니다.”

– 동창회 규모에 비해 예산액이 적은 것은 아닌지.

“글쎄요. 기금 1억1천4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동문들의 회비, 찬조금을 모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회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젊은 동문이나 연락이 끊긴 동문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산하에 여성동문회도 조직돼 있죠.

“지난 2002년 11월 조직돼 현재 한국스티펠제약 權善珠(약학67-71)사장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창 시절만 해도 약대에 여성이 많지 않았는데, 70~80년대 이후부터 여성 동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현재 회원이 2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 특별히 추진할 사업계획은.

“새로운 일보다는 이전 사업들의 내실을 다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모교 李長茂총장을 뵌 적이 있는데, 올해부터 동문들을 대상으로 모교 투어(규장각,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동문들에게 애교심을 일깨우는 좋은 일이라 생각돼서 홈커밍데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접목시키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 주말에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다른 단과대학 및 학과 동창회도 홈커밍데이 행사를 주말에 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주말 투어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봄, 가을에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리는데 5월, 10월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주말 투어를 운영한다든지 여하튼 방법을 찾으면 답이 나오겠죠. 투어 프로그램이 각 동창회 행사와 연계돼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인생을 살다보니 ‘끈’이 중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 동문들이 개성이 강해 독불장군식 행보를 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서로 의지하고 돕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동창회 활동도 좋은 끈을 맺는 장입니다. 젊은 동문들이 이 점을 깨닫고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부산 출신인 李회장은 경남고를 거쳐 모교 졸업 후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학 졸업 후 천도제약에서 근무하다 1973년 삼익제약을 설립해 현재 직원 1백30명, 연매출 1백40억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독일 브리타 정수기를 수입해 판매도 한다. 여행을 좋아해 아마존강, 킬리만자로 등 세계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라고. 부인과 사이에 두 아들이 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한국의 ‘다보스 포럼’을 꿈꾼다”

SGS동창회 李承漢회장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사장)

지난해 12월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장으로 추대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李承漢(SGS 11기)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영의 達人’이다. 최단시일 내에 유수한 대기업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한국능률협회컨설팅) 14위에 올랐으며 창의적인 발상으로 유통업계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5천3백여 생필품목 가격을 인하, 동종업계까지 참여를 이끌어 냈다. 지난 3월 26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李회장을 만나 동창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들어봤다.

– 동문들의 기대가 큽니다.

“기대치가 낮아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텐데…(웃음), 부담이 큽니다. 사실 일이 많아 기존에 맡고 있던 직책들도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환대원 金基浩원장님의 집요한 권유를 뿌리치기 어렵더라고요. 맡은 이상 열심히 해야죠.”

– ‘이런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과정은 다른 과정과 달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동창회가 하나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국토, 경쟁력 있는 도시 등을 만드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동창회가 과정수료 후에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대표 포럼으로 성장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다보스 포럼’으로 자리잡아야겠죠.”

– 동창회 조직이 조금 복잡하죠.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으로 출발해 2001년부터 CEO지속가능(舊환경)경영포럼, 도시환경디자인최고전문가과정으로 분화돼 현재 3개 과정 회원들이 함께 모임을 갖다보니 복잡한 면이 있죠. 전체 회원이 7백여 명 됩니다. 동창회는 각 과정, 기수들이 씨줄조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위주로만 가서는 안되죠. 그러려면 각 과정, 기수에서 리딩 회원과 아이디어가 특출한 회원을 몇 사람 선정해 12인 그룹, 즉 스티어링(steering)그룹을 조직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대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 발전위원장도 맡으셨다고요.

“삼성테스코의 기업문화가 지속가능경영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 때문에 이런 자리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연구원은 기업과 시민, 정부 등 다영역간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환대원이 중심이 돼 서울대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 최근 회사 비전설명회(Company Conference)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임직원 7백여 명과 함께 올해를 ‘브랜드가치 1위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16개 점포, 60개 익스프레스점(슈퍼마켓)을 신설해 매출 7조3천억원, 영업이익 4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밖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센터 오픈, 나눔바자회, 어린이 나눔가치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기후 변화 대응’ 등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분야에서도 201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올해 대비 최대 50%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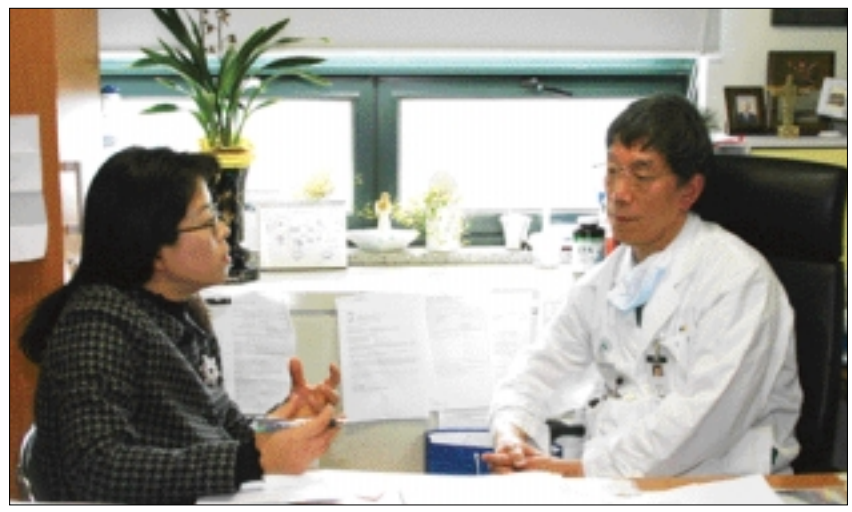
– 서울대를 위해 조언하신다면.

“왜 서울대는 세계 1위가 아닌 10위권 대학을 목표로 잡는 걸까요? 꿈은 원대하고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 그 아래라도 갈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모하마드 국왕이 2012년까지 매년 관광객을 1억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정했기에 지금의 두바이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천만명으로 잡았다면 지금의 두바이는 없었을 겁니다. 서울대가 좀 더 큰 이상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몇몇 분야에서는 5년 이내에 세계 1위라는 성과를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경북 출신인 李회장은 대구 계성고, 영남대 졸업 후 한양대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물산 런던지점장,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보좌역 부사장, 삼성물산 대표를 역임하며 종로타워, 리움미술관, 타워펠리스 등을 기획했다. 李회장은 4월부터 모교 CEO지속가능경영포럼의 주임교수로 초빙돼 강의할 예정이다. 〈南〉

16년간 1천8백건 집도… 세계 최고의 간이식 名醫

돌문을 찾아서 **李 承 奎** 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



대 담 : 본보 蔡耕玉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 차장)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아름답다. 서울대인 중에 그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간이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李承奎(의학67-73)교수야말로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지만 서울대 병원 스태프로 남지 못한 좌절을 겪었고 그 좌절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한 李교수는 "서울대인들은 통상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도전정신이 약하고 쉽게 꺾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李교수는 "다른 병원이나 변방에서 고립돼 본 경험 덕분에 머리를 숙일 줄 알게 됐고 이것이 새로운 분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원동력이 됐다"면서 "일본 도쿄의대의 경우 자기대학 출신을 바로 뽑지 않고 반드시 다른 대학에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이는데 서울대도 그런 방식으로 스태프들을 뽑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딸이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의사의 길을 가게 돼 기쁘다는 李교수는 "대학 갈 때만 해도 의사될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막상 4년 동안 대학생활 하고 나더니 의과대학원을 택했다"면서 "의사가 되라 마라 한 적은 없었지만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 솔직히 기분이 좋더라"며 웃었다.

하지만 최근 의과대학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李교수는 "의과대학은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성실이 최고의 덕목이 되는 분야"라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과학계로 가야하는데 다들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면허가 있는 직업을 선호하다보니 의대로 쏠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내년이면 환갑이지만 아직도 8~10시간 수술은 거뜬히 할 만큼 체력은 40대 이상이다. 李교수는 "외과의사는 머리에 든 게 아무리 많아도 다리에 힘 빠지면 끝장"이라면서 "일주일에 3~4번 이상 조깅을 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게 밥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봄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던 지난 3월 17일 서울아산병원 10층 교수실에서 李교수와 만났다.

2000년 세계 최초로
2:1 생체 간이식 성공

"수술은 마약 같아
며칠 집도 안하면 근질근질"

–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화, 수, 목, 금 수술이 잡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는 셈이죠."

– 수술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짧게 걸리면 4시간, 복잡한 이식이나 2대 1 생체 간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20시간도 걸려요. 외과의사들한테는 수술이 마약 같아요. 며칠 수술 없으면 허전하고 근질근질해요."

– 최근 방영되고 있는 미국 드라마 중에 '그레이스 아나토미'라고 아시죠? 그거 보면서 외과의사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과 실제와는 어떤가요.

"비슷해요. 외과가 제일 드라마틱하고, 승부가 가장 확실하거든요. 살리냐 못 살리냐. 그런 면에서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데, 장래성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맹장수술할 때 20년 경험의 대학병원 교수가 하나, 전문의 따고 1년 된 신참 의사가 하나 쥐꼬리만한 특진료를 빼고는 수가가 똑같아요. 그리고 외과수술 수가가 안과나 이비인후과보다도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 누가 외과 전공을 하려고 하겠어요.

외과의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병원이나 최소한 5백 병상 이상 되는 준 종합병원에 스태프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리라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죠. 그래서 잘 안하려고 하는데, 실제 외과의사 생활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병원에서는 드라마틱하고 정말 재미있어요."

– 요즘 의대생들이 응급상황 없고 돈 많이 버는 분야만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죠.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제일 구인난이 심한 곳이 흉부외과입니다. 흉부외과는 오로지 대학병원에만 자리가 있으니까 다들 기피하죠. 마취과도 준 종합병원 이상 아니면 힘들어요. 산부인과는 의료사고가 많고 요즘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보니 기피대상이 됐죠.

레지던트 4년이 끝나면 펠로우라고 해서 전임의 트레이닝 제도가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같으면 간담도 및 간이식 전문, 위장 전문 등으로 갈라지는데 간이식 간담도 부분은 대개 들어오면 첫 1년은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 집에 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거죠. 펠로우 2년 차가 되면 일주일에 하루 반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데 이쪽으로 오는 애들은 분명 한 뭔가가 있는 거죠."

– 요즘 의대에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외과의 경우 체력적으로 여자들이 불리할 것 같은데요.

"요즘 의과대학의 50%가 여학생입니다. 지금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에 여선생이 없는 곳이 없어요. 대개 30% 정도가 여자에요. 잘 하고 체력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동료들이 싫어해요. 결혼해서 임신하면 출산휴가가 있잖아요. 그때 쉬게 되면 남자동료들이 부담이 커지고 일이 많아지니까요. 여의사가 출산만 안하면 남자와 거의 동등하게 하는데 출산 안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간이식 쪽은 아직 여의사가 없어요."

– 교수님이 외과를 선택하시게 된 동기는 뭔가요. 당시에는 성적도 상위권이고 존경받는 과였지요.

"저희 때는 외과가 인기 좋았어요. 그때만 해도 대형병원이 많지 않아서 개업해도 돈도 잘 벌고 그랬거든요. 제가 2학년 말에 실습을 나왔는데, 지금은 레지던트 파워가 많이 줄었지만 저희 때는 레지던트 파워가 대단했어요. 레지던트 4년 차를 치프(chief)라고 하는데 치프가 밤에는 병동장 다음이었어요. 4년 차가 밑에 졸개들 1, 2, 3년 차를 끌고 회진을 하는데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흉부외과와 일반외과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흉부외과는 멤버가 작았고 일반외과는 15명 정도 됐어요. 그땐 끌고 다니는 애들이 많을 수록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외과를 택했죠."

– 일반외과를 선택해서 다시 간담도로 전공을 바꾼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대장항문 외과를 전공했어요. 서울대 교수, 고대 구로병원장, 아산병원장을 역임하신 閔丙哲(의학48-52)선생님의 개인병원(신영병원)에 5년 정도 있었는데 원래 그 병원이 간담도 전문병원이었거든요. 86년도에 미국 장기 연수를 떠나게 됐는데, 閔丙哲선생님이 대장항문 해서 뭐하냐, 간담도로 전공을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대 구로병원에 있다보니 서울대가 마이너리티 그룹에 속하잖아요. 마이너리티 그룹인데 거기서 대장항문처럼 쉬운 수술을 해서는 살아 남기가 힘들겠더라구요.

그때 마침 외국서 나오는 대학 저널을 봤는데 동경대 의대 주임교수가 간 자르는 논문을 썼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반했어요. 간도 이렇게 자를 수 있으면 한 번 해볼 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미국 장기 연수를 간담도 외과로 바꿔 신청하고 연수가 끝날 때쯤 일본 외과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당신에게 가서 배우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니 숙식만 해결해 달라 했더니 허락하는 답신이 왔어요. 1년 동안 미국 가서 간담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서 두 달간 그 양반 수술을 보고 배웠지요. 그렇게 해서 간담도로 전공이 바뀐 거예요."

– 처음 간을 잘라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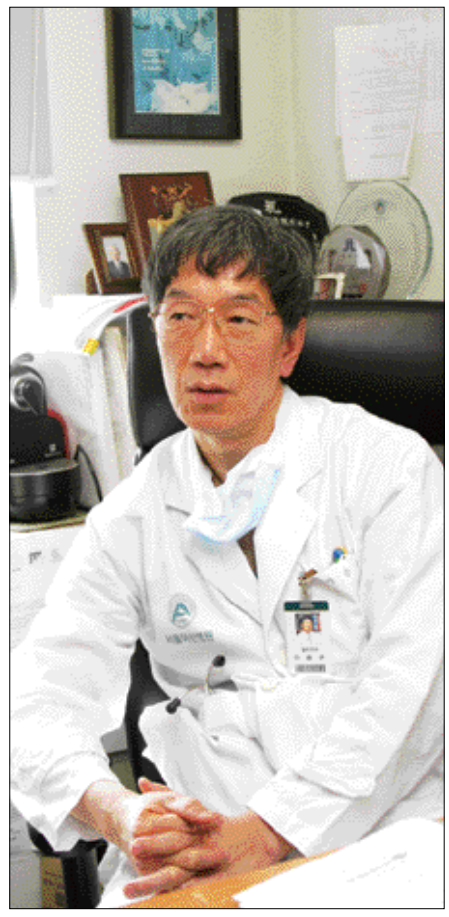
"첫사랑, 첫 데이트가 기억에 남는 것처럼 첫 수술은 항상 인상에 남죠. 83년인가, 큰 혹과 간경화가 있는 간을 처음 잘랐는데 지금은 3시간이면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을 그때는 14시간 걸렸어요. 수술 앞두고 3~4일은 잠을 제대로 못잤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처음 간이식을 92년 8월에 했는데 그때는 간을 적출해서 운송하고 수술하기까지 30시간, 수술 자체만 20시간 걸렸죠. 94년 12월에 소아 생체이식을 하고 어른 생체 간이식을 97년 2월, 2대 1 생체 간이식은 2000년 3월에 했어요. 남들은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힘들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는 성공할거라는 확신을 갖고 했으니깐 두렵지는 않더라구요.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93년 간암, 간경화 환자 수술이죠. 98년 8월 21일에 수술을 하고 일주일 뒤인 27일에 또 했어요. 세 번째 수술은 10월 9일에 했죠. 첫 번째 환자가 수술하고 두 달만에 돌아가셨는데 만약 두 번째 환자가 없었다면 첫 번째 환자가 죽는 걸 봐야했겠죠. 그랬다면 도전을 못했을 거예요. 운이 좋았죠. 16년간 수술을 1천8백건 정도 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살아 남기 위해 끊임없이 새 분야 도전

의학은 성실이 최고의 덕목
"머리 좋은 사람은 과학계로"



– 처음이나 지금이나 환자가 잘못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집사람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제 인상을 척 보면 '신경질이 극도로 나 있구나' 알아차려요. 수술이 잘못됐을 때는 항상 그렇대요. 이식이 제일 어려운 외과 학문이라 생각드는 게, 일반 수술은 환자 운명의 95%를 수술이 결정해요. 수술 후 관리는 5% 미만이에요. 간이식은 달라요. 수술하기 전부터 간이식 환자들은 체력이 급도로 떨어진 환자들이 대부분이죠.

또 일반 환자와 다른 게 이식 후에 면역기능을 마비시켜야 해요. 거부반응을 막아주기 위해 면역기능을 마비시켜야 하는데 환자가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세균 감염이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엄청 신경을 써야 해요. 간담도 외과 펠로우들이 일주일에 반나절 밖에 집에 못 가는 이유가 수술이 많은 것도 있지만 환자를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잘해도 사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식 받고 사망하는 확률이 4%쯤 돼요."

– 초기에는 몇 %였어요.

"제가 92년에 시작했는데, 98년까지 30%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98년 중반에 생체 간이식에서 변형우엽절제술을 개발했는데, 기증자에서 떼어낸 부분 간의 기능을 1백% 자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술법이에요. 세계 최초로 저희가 했는데 그 이후 99년부터 성공률이 92%로 올라갔어요. 최근 3~4년 전부터는 95~96% 정도가 걸어서 퇴원을 하세요."

– 세계 최초로 변형우엽절제 생체이식도 했는데 외국 병원, 특히 존스홉킨스나 MD앤더슨 등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병원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제가 하는 간담도 간이식 분야만 말하면 존스홉킨스와 MD앤더슨은 어린애나 다름없죠. 우리나라는 인구 1백만명당 3명 정도가 뇌사 기증자이고, 미국이 뇌사 기증자가 인구 1백만명당 27명 정도예요. 우리가 생체 간이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미국도 생체 간이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한데, 간 자르는 기술이 발달이 안됐어요.

생체 간이식을 하려면 간암수술을 많이 해봐야 돼요. 미국은 간암수술이 대장암이 간에 전이된 전이성 간암수술이에요. 전이성 간암은 정상 간에 생기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쉬워요. 말 그대로 파내기만 하면 되죠. 반면 우리 간암은 모두 경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술하면 안되고, 해부학 구조에 기초해서 계통적으로 해야 돼요. 암튼 그래서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요.

MD앤더슨은 생체이식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작년 1월 MD앤더슨에서 간암 국제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가서 보고 비교해 보니 우리가 하늘이면 그쪽은 땅이에요. 저희가 2005년까지는 생체이식 건수가 일본보다 적었는데 2006년부터 생체 간이식을 일본보다 더 많이 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죠."

– 교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기록을 직접 세우신 거잖아요.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도전을 많이 했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 의료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젊은 의사들이 도전하기를 굉장히 겁을 내거든요. 사실 젊어서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어려운 케이스에 계속 도전을 해 봐야지 자기가 그 케이스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병원에 왜 안 남으셨어요.

"안 남은 게 아니라 못 남았죠.(웃음) 은사이신 閔丙哲선생님이 저를 꼬실 때 신영병원이 문 닫을 때까지만 같이 일해주면 서울대 병원 스태프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閔교수님 파워가 막강했거든요. 그런데 87년 7월에 신영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閔선생님이 고대 구로병원장으로 가시면서 저더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를 서울대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컸죠.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잘된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 병원에 있었으면 도전을 안 했을 거예요. 고대에 있으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웠고 제가 서울아산병원 와서도 서울대를 이기려고 2~3배 노력을 더 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발전했고, 우리나라 간담도 외과도 많이 발전한 게 아닌가 싶어요."

– 잠시 집안 얘기를 해볼까요. 어렸을 때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으실 정도면 집안이 부유했나봐요.

"우리 아버님이 11형제 중 셋째였는데 일제시대에 상고를 나오셨어요. 11형제 중에서 아버지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형제들 공부를 다 시켰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아팠을 때는 아버님이 망했을 때였어요. 다행히 작은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덕분에 일본으로 가서 부동산 하고 빠찡코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셨어요. 작은아버지가 형님 은혜를 갚겠다고 하셔서 모든 수술비와 체류비를 대셨어죠."

– 살아오신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도전적이고 매사 열심이신 것 같아요. 혹시 지칠 때는 무엇으로 위안을 삼으세요.

"분해서 다시 해보죠. 꼭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깐. 저는 술을 잘 못 먹거든요.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조깅이 전부에요. 땀을 쭉 흘리고 자고 나면 풀리죠. 옛날엔 교회에 안 나가다 요즘 교회간 지 10여 년 되니깐 그것도 도움이 되고.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환자가 돌아가시는거나 사시는거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큰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첨단장비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청진기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어요. 외과, 내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브레인이 지배하지 기계가 지배할 수는 없어요. 기계는 어느 병원이나 돈만 있으면 들여놓는 거고. 앞서 나가려면 결국은 자신의 머리, 의학적인 지식, 열정 등으로 하는 거죠."

– 교수님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면, 후계자를 많이 키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팀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 3명에게 생체 간이식 수술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 병원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만큼 후배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이제는 '李承奎팀'이라고 불리죠. 전국에서 생체 간이식을 하는 지방병원 의사들 중 80%가 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많이 잘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 의사사회는 규율이 엄청 세다고 하잖아요. 교수님만의 트레이닝법이 있으세요.

"야단을 많이 치는 스타일이에요. 수술할 때 특히. 요즘에는 안 그럴려고 자제하는데, 소리를 하도 많이 질러서 간호사들이 수술 끝나고 나면 귀가 멍멍하다고 농담해요.

야단을 치면서 그 친구들에게 일기를 적으라고 해요. 왜 야단을 맞았나, 야단맞은 이유가 뭔가. 제가 연수를 다녀오면 매일 밤 집에 와서 일기를 썼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그때 일기에 적어뒀던 것을 보는 게 교과서보다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아! 의사들이 이렇게 했구나, 뭐가 문제였구나.'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비슷한 수술을 할 때 일기를 펼쳐보는 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말 듣고 일기 쓰는 애들은 절반도 안될 거예요."

–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더 현역으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10년 정도 더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부모님이 70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걱정인데, 대개 유전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70 정도를 인생의 골로 잡고 있어요. 그때 가서 더 살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암튼 죽는 날까지는 뭔가 규칙적인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서울대 나온 분들이 대체로 좌절의 경험이 없잖아요. 교만하기도 쉽고. 동문 후배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저희 병원 스태프 90%가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서울대에서 펠로우 끝내고 다이렉트로 온 스태프가 있고 서울대에서 레지던트 끝내고 다른 병원 가서, 저처럼 변방에서 쓴맛도 보고 왕따도 당해 본 사람들도 있어요. 고생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반면에 서울대에서 바로 온 젊은이들은 도전정신도 약하고 한 번 꺽이면 그대로 좌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서울대 병원에서 30%는 타교 출신을 뽑는다면서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 전국의 모든 의대 밑에 서울공대가 있다고 할 만큼 우수한 아이들이 지방 의대라도 부득불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의대간의 격차가 있나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큰물에서 놀아야 많이 배우는데 일단 배우는 것이 한정이 돼 있어요. 병원규모가 한정돼 있으니까 다루는 환자수도 제한되고 경험하는 것도 적고. 한마디로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울산의대 아이들은 복이 터졌죠. 졸업생이 30명밖에 안되는데 서울아산병원 인턴은 1백20명 뽑는단 말이에요. 인턴되고 스태프되는 게 거의 자동으로 되니까 울산의대 아이들이 조금 승부욕이 없는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간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비결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정상적인 생활만 하면 돼요. 폭음 안 하는 것, 몸을 혹사하지 않는 것,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정상 리듬대로 하면 병은 안 생겨요. 암은 유전적인 게 참 많아요. 부모, 형제에 암이 있으면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40대에 들어서면 정기검진을 무조건 매년 해야 돼요. 조기에 발견하면 70~80% 완치가 가능하죠."

〈사진= 金南柱기자〉

서울대 가족 故 宋鍾旭 前호남비료 상무

자녀·사위·손자·손녀 등 9명 '미니 서울대동창회'

5남매 합창 실력 대단 … "자율 속 절도 있는 삶 강조"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막내야! 얼굴 좀 보게 잠깐 나오너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 잔 한 터라 宋鍾旭(경성법전38-42 前호남비료 상무·국민은행 초대 영업부장)동문은 기분이 좋다. 그는 자녀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홍조 띤 얼굴로 집에 들어서자 마자 한 명씩 이름을 부른다.

곧이어 장녀 宋惠淳(가정교육62-66 美 뉴욕 병원 영양사·Registered Dietician)동문, 장남 宋鐵淳(경제65-70 美뉴저지 Alxus Stakehouse 대표)동문, 차남 宋普淳(상학67-74 서울통신기술 사장)동문, 3남 宋慶淳(무역69-76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KECG) 대표·모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동문, 그리고 4남 宋雄淳(법학71-75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증권선물위원회 위원)동문이 약속이나 한 듯 순서대로 줄을 선다. 宋鍾旭동문의 "노래 한 곡 불러봐라!"는 말에 다섯 남매는 저마다의 음색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날 밤도 宋동문 가족은 자그마한 추억을 만들고는 모두들 잠자리에 든다.

손자 볼 나이가 된 다섯 남매는 10여 년 전 고인이 된 宋鍾旭동문을 떠올릴 때면 늘 자신들을 깨워 노래를 시켰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입을 모은다.

宋동문 가족 중에는 다섯 자녀와 사위 趙錫萬(경제58-64 재미 사업·前한국은행 근무)동문을 비롯해 4남 宋雄淳동문의 자녀인 손자 宋彰彬(경제96-01 JP모건 과장)동문과 손녀 宋銀彬(심리99-03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겸 수석연구원)동문이 모두 서울대인이다.

졸업 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장녀 宋惠淳동문은 뉴욕의 병원에서 40년 가까이 전문 영양사로서 지금까지 수만명의 환자들의 식생활을 책임져왔으며, 장남 宋鐵淳동문은 한국은행 재직 당시 습득한 경제마인드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앞줄 좌로부터 宋惠淳·宋鍾旭동문, 한 명 건너 宋雄淳동문, 가운데줄 네 번째 宋鐵淳동문, 뒷줄 좌로부터 宋普淳동문, 한 명 건너 趙錫萬·宋慶淳동문

차남 宋普淳동문은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미주팀을 총괄하며 10년간 미주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보통신 네트워크 전문기업 대표를 맡고 있다.

3남 宋慶淳동문 역시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던 중 국비유학생으로 뽑혀 15년간 美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며 부총재 자문역을 역임했으며, 홍콩의 노무라 프로젝트 금융사에서 운영담당 수석부사장을 거친 국제경영 및 금융 전문가이다. 지난 2002년 귀국해 국내외 민간·공기업, 로펌, 정부기관 등에 다양한 전문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막내인 4남 宋雄淳동문은 국내 로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M&A 및 기업 구조조정, 장기금융시장 등을 다루고 있으며, 형제 가운데 유일한 법학도이자 한국에서 생활해온 국내파(?)이다. 宋雄淳동문을 제외한 형제들이 해외에서 생활한 관계로 그 자녀들이 외국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면 서울대 가족이 더 늘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모교를 졸업한 두 손자 역시 30대 초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경제금융분야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공군시절 통역장교였던 宋彰彬동문은 JP모건에서 투자은행 담당업무를 맡고 있으며, 宋銀彬동문은 2007년 리서치 애널리스트 운송부문 '베스트 5'에 들 정도로 관련분야에서 인정받으며 각종 경제지 자문역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한편 모교 국제대학원에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을 강의하고 있는 宋慶淳동문의 사무실 한 켠에는 宋鍾旭동문이 자녀들에게 써준 '訓'이라는 제목의 액자가 놓여있다.

"세계은행 근무 당시 부친께서 저를 위해 써주신 당부의 말씀이에요. 아마 다른 형제들도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손수 써주셨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한국인임을 명심하고, 고국에 살아 있는 부모형제가 있음을 잊지 말고, 매사에 성실하라는 내용이죠."

宋鍾旭동문은 법대 졸업 후 금융조합 지점장으로 시작해 오랫동안 금융분야에 몸담았으며, 이후 국영기업체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정신수양에 좋은 검도가 취미였던 宋동문은 늘 자녀들에게 '규율을 지키고 절도있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고.

"부친께서는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되 저희에게 많은 자율을 주셨어요. 각자의 색깔이 묻어나도록 서로 간섭하지 말고 무엇이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라고 하셨죠. '자기 인생은 자기의 판단으로 사는거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고싶은 것이 있으면 스스로 시도해보고 노력해서 성취하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각자 생활한 건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형제들이 노래를 잘 불렀어요. 남자형제가 많으니까 늘 마당에서 레슬링으로 땀범벅이 되곤 했는데, 쉴 겸 피아노에 둘러앉아 신나게 합창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한 마음이 되곤 했어요."

宋동문 가족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친 尹再順여사와 큰형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가족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부모님의 확고한 신념과 늘 변함이 없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도 각자의 개성대로 성실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네요. 조만간 3대가 함께 어머니댁에 놀러가서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노래 한번 불러야겠습니다." 〈表〉

故 宋鍾旭(경성법전38-42)동문 가족

장녀
宋惠淳(가정교육62-66)
장남
宋鐵淳(경제65-70)
차남
宋普淳(상학67-74)
3남
宋慶淳(무역69-76)
4남
宋雄淳(법학71-75)
사위
趙錫萬(경제58-64)
손자
宋彰彬(경제96-01)
손녀
宋銀彬(심리99-03)

특별기고

꽃을 보려거든, 술을 마시려거든

金 在 淳
(경제45-52)
샘터사 고문
본회 명예회장

책을 읽으면서 노트를 하는 것, 뜻 깊은 箴言이나 죽을 때까지 외워두고 싶은 名詩, 명연설, 명문들은 언제나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메말라가는 나의 感性을 깨우쳐주기도 한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건만 꽃에는 움이 트려 한다. 다투어 먼저 피려는 자연의 지혜일까. 화분을 나르는 벌레들도 슬슬 움직거리는가 보다. 화분이 날아가면 교배의 확률도 높아지리라. 하루빨리 날아오라고 DNA는 재촉하는 것일까. 몇 천, 몇 만, 몇 억년의 생명을 땅속에 묻어 왔던 컴컴한 정적의 세계가 무너지고 주변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봄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理致, 자연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일과에 따라 봄기운을 마시면서 산책길에 나섰다. 집을 나설 때까지 읽고 있던 菜根譚의 구절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걸어간다. 明(1368~1644)나라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백년 전에 쓰인 책이다. 쓴 이는 洪自誠이며 菜根이란 채소의 뿌리, 즉 변변치 못한 음식을 말한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이겨 낸 사람만이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다. 이 책은 모두 다 합쳐서 3백60개의 짧은 글로 된 잠언집이지만 유교, 불교, 도교를 융합해 그 토대 위에서 인생을 말하고 處世를 말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 이를테면 이런 말도 있다.

◦天地는 영원하지만 인생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의 수명은 길어도 백년, 잠깐 사이에 지나간다. 다행히 이 세상에 태어날 바에는 즐겁게 살아갈 것이지만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두려움도 가져야 한다.

◦인정은 변하기 쉽고, 인생살이는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험난한 길목에서는 한걸음 물러나 길을 비켜서고, 편하게 가는 길에서도 3할은 양보하는 마음씨가 필요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인품이 고상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은 더 고상한 사람이다.

◦작은 過失은 모르는 척 하고, 감춰진 것은 드러내지 말고, 옛 상처는 잊고 지내라. – 즉 관용을 타이르는 말이다.

◦더럽혀진 땅에서는 작물이 자라지만 맑은 물에서는 고기도 잘 살지 못한다. – 사람의 그릇을 말함이다.

채근담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꽃을 보려거든 절반 피어났을 때가 좋고, 술을 마시거든 거나하게 취기가 감돌 정도에서 최고의 흥취를 맛볼 수가 있다.' 균형감각과 中庸을 중히 여기는 태도에는 통달한 달인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해진다.

동문기고

모교,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

宋 榮 德
(성악77-81)
(주)네델 대표

며칠 전 지인과 모처럼 일상사를 추슬러 보는 대화를 나누다 문득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심경에 잠겼던 적이 있다. 그것은 서울대 출신이면서 매월 간행되는 서울대 동창회보에 관해 전혀 까맣게 잊고 지내왔다는 사실이었다.

부지런히 집에 와 인터넷을 검색해 사실 확인을 하고나서는 내친김에 회보를 받아보기 위해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을 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간행돼 동문들에게 매월 보내지고 있었나 보다. 필자의 무관심의 소치로 27년 전의 주소가 그대로인 채 총동창회 홈페이지도 모르고 지내왔으니 회보가 반송됐던 것은 자명한 일.

성경에 처신과 경세의 일깨움으로 많이 예시되는 '탕자의 비유'가 있다. 아비의 재산에 대해 아들로서의 당연한 몫을 달라하여 집을 떠나서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모든 것을 잃고 결국에는 아비 집에 돌아온 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는 모든 허물을 덮고 아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잔치를 벌인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모교, 그래서 모교라고 하는 그 자체의 어의가 어버이 품인가 보다.

그렇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으로 당연한 인정을 받고 살아왔다지만 탕자가 가지고 떠난 아비의 유산처럼 이미 나도 서울대 출신이라는 유산을 모교로부터 받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반갑게 응대하는 동창회 사무실 직원과 통화하며 27년만에 주소 변경을 하고 서둘러 동창회 회원 가입도 했다. 그러고 나니 큰 과오 하나를 바로잡은 듯 기분이 홀가분하다. 회비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서울대 패스카드도 만들었다. 장학빌딩 건립에 작은 정성으로라도 참여하고자 한다. 선후배 동문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제 구실을 다해 보려 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동창회 현황을 보니 나와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음에 또 한 번 놀라고, 그리고 한편으로 부끄럽다.

얼마 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이 발표됐다. 우리 모교가 2025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초일류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대인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성과와 국제교류 등에 힘입어 세계 51위 대학으로 부상했고 그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멀지않은 미래에 세계의 대학은 초일류대학 10여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속되거나 폐교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교 서울대가 향후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독립해 존속하지 못한다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세계화 속에서의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유지시키는 분명한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이다. 철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정부의 제도적 지원, 대학 스스로의 자율성, 그리고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자구적 노력이 이뤄질 때 모교 서울대는 우리가 염원하는 세계 10위권의 초일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문제는 재정이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의 엄청난 재정 확충을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설상가상 서울대의 존재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 평준화 우민 지향적인 부류들에 의해 서울대 폐지 논의까지 나오는 현실은 실로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혜안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서울대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동문이다.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의 경우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동문으로부터 모금하고 그 기금을 운용해 각종 수익사업 등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키워나가며 모교를 지원·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지난 1월 서울대총동창회 2008년 신년교례회에서 林光洙회장님이 밝힌 바와 같이 장학빌딩 건립기금 3백억원 모금이 무난히 이뤄졌지만 이에 참여한 동문이 1월 기준으로 2천7백여 명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피력한 일이다. 또 동창회보를 매월 발행하는데 그 부수가 미주 포함 10만여 부 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 동창회의 현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30만 동문의 구성원 중 불과 1백분의 1도 채 안되는 약 1%만이 관심을 갖고 장학빌딩 건립사업에 참여한 것이고, 늘 동창회와 연결돼 있는 동문의 숫자는 동창회보 발송 기준 10만여 명이라는 이야기다. 30만 동문 대비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도 모교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 동문의 관심과 참여가 너무 빈약하다. 나부터 할 말은 없지만 바로 그것이다. 외국의 일류대학 동문의 활동에 비교돼 서울대 동문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우리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결 과제인 것이다.

얼마 전 L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자신의 모교 K대학 동문회에 참석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여기 모인 여러분의 지원 덕입니다"라고 연설하는 것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본 적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 공인으로서 특정 집단에 가서 여러분 공이라 칭송하는 것은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 그러한 점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나름의 계산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본다. 그러한 행보를 통해 K대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 큰 동문세력으로 연합해 모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우리에게는 서울대인이라는 자긍심이 있다. 능력도 탁월하다. 문제는 연합하는 힘이다. 우리에게 연합하고자 하는 의지와 모교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양돼 30만 동문의 힘이 뭉쳐지면 그 폭발적인 힘은 세계 무대에서 초일류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드높이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최근 모교 발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 간 것으로 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행보에, 또한 가시적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학교 당국과 총동창회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모교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 총동창회도 30만 동문이 하나돼 협력하기 위해 동문들의 잠자고 있는 모교 사랑을 일깨우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술·연구·장학사업 지원과 수익사업의 모델을 부단히 개발하고 기금 확충을 위한 백방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모교의 미래인 젊은 후배들의 벤처사업에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고 동창회와 모교를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동문들이 모교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배가시켜 돌려줘야 한다. 세계 속에 우뚝 선 서울대를 위하여, 그리고 선진 복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동문 기고

“대학교수는 중산계층 아닌 서민”

李 仁 子
(가정교육55-59)
서경대 석좌교수·시인

李明博대통령이 당선돼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기다리며 국민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며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너그럽게 지지했다.

그런데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내정자들이 거론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몽롱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내정자들의 행태는 국민의 지지를 외면하게 만든 크나큰 요인이 되고 말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재산이 평균 39억원이라니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미 지면이나 인터넷에서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 등의 야유성 유행어가 만연하고 있기에 더 이상의 주석은 달지 않기로 하자.

다만 필자가 가슴 아픈 것은 “부부가 대학교수로 살아왔으니 이만한 재산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교수생활을 했는데 왜 지지리도 못나게 재산을 축적하지 못했으며, “땅을 너무 사랑해서 땅을 샀다”는 어떤 여성 환경운동가만큼 현명하지 못했으며 “암 선고를 받지 않아 고맙다고 오피스텔을 사주는 남편”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맞벌이 부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다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남매 공부시키고 생활하면서 땅에 투자할 여윳돈이나 아파트 분양에 투자할 목돈을 만져 본 적이 없다.

3남매가 대학원까지 졸업해 제 앞가림을 모두 할 수 있게 만들고 내집 마련 위해 은행 융자 얻은 돈 갚아가며 살다 보니 빡빡한 살림에 어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중산층~상하층 국민들이 나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극성스러운 아줌마 부대에 끼여 함께 어울렸더라면 ‘강금실’의 경지에 이르렀을지 모르겠으나 벼락부자들의 그 욕심 데글데글 붙은 얼굴을 부러워한 적이 없기에 살아오는 동안 가족간, 선후배간, 친구간에 사람이 치러야 할 도리와 인사를 가능한 한 잘 치르며 사람답게 살고자 했다.

아이들이 다 큰 후에는 우리 집 가훈을 ‘웃으며 살자’라고 정하고 가능하면 웃고 살 수 있도록 가정분위기를 만들고 민주적 사고방식으로 서로 존중했다. 또 가족간에 많은 대화로 속에 앙금이 남는 일이 없도록 편안하게 지내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없이 삶의 질을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했다. 공부 잘한 자식들이 40대 초·중반에 대학교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비교적 성공한 삶을 살아온 가정이라는 평판에 수긍하며 나름대로 중·상층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됐다.

> “우리는 서민이야, 대학교수가 엘리트고 중·상 계층이라는 건 옛날 이야기지. 대학교수 월급 받아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파트 분양가 내고 쩔쩔매는데 이게 서민이 아니고 뭐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 많은 저 애들 따라갈 수 없어. 공부 못했어도 돈 많은 사람이 큰소리치고 한국사회를 이끄는데….”

그런데 李明博 내각 초대 장관 내정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열심히 살아온 중산층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스스로의 행복지수에 크나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일요일 아들 딸 네 식구가 모두 점심을 같이 하고 집에 모여 3남매간에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자식들의 허탈감은 더욱 심각했다. 나름대로 실력 있다고 인정받는 40대 초반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막내아들이 10년 교수생활을 했지만 아이들 교육비며 아파트 융자금 갚기가 힘들다며 개인병원으로 옮겨 간 심정을 토로하는 말인즉,

“우리는 서민이야, 대학교수가 엘리트고 중·상 계층이라는 건 옛날 이야기지. 대학교수 월급 받아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파트 분양가 내고 쩔쩔매는데 이게 서민이 아니고 뭐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 많은 저 애들 따라갈 수 없어. 공부 아무리 잘했으면 무엇해? 공부 못했어도 돈 많은 사람이 큰소리치고 한국사회를 이끄는데…. 한국에서 서민으로 살 바에 외국에 가서 서민으로 사는 게 편할지도 몰라”라며, 자조석인 말로 말문을 열자 큰아들과 딸이 합세해 소위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상속받은 젊은이들의 행태를 낱낱이 들추며 그들로 하여금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돈의 위력(?)을 질타하고 있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서민이구나! 엄마, 아빠가 바보처럼 성실해서 부동산 투기도 약삭빠르게 줄서기도 못해서 돈도 권력도 잡지 못했으니 아무리 최선의 노력으로 살았다 한들 이제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계층의 상향 이동은 못했을망정 중산층이었던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자식을 서민층으로 하향시키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사회구조인가?

사회계층의 측정을 직업×7, 교육×4의 두 요인으로 분류하는 Hollingshead의 지론은 우리나라 현실사회에서는 무용지물인가? 최고의 학벌과 전문직이 사회계층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없다면 우리 후대의 자손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삶의 지표를 마련할 수 있을는지?

방화혐의자 호칭과 ‘氏’字의 사용

朴 千 緖
(행정56-60)
(사)한국어문회 상임이사
수필가

얼마 전에도 여학생을 추행한 파렴치한 악질교사의 범죄사건이 터지자 신문들은 ‘여학생 추행사건으로 모 학교교사 ○○○씨 구속’이라고 대문짝만 한 표제를 달더니, 지난 2월 10일 대한민국 국보 제1호 숭례문을 불태워 버린 천인공노할 방화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신문, TV, 라디오들이 일제히 ‘숭례문 방화혐의자 ○○○씨를 수배 중’이라는 투로 이름에 꼭 ‘씨’자를 넣어서 보도했다.

문제는 이 경우 그 이름에 ‘氏’자를 붙이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씨’자는 ‘성년이 된 사람의 姓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해 부르거나 이르는 말’인데, 이 호칭을 아무 데나 마구 붙이는 우리 관행은 높이거나 대접해 칭하는 ‘씨’자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특히 국민들의 정의로운 감정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이 관행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인권존중 사상에서 비롯한 줄 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인권보호가 철저한 서양이나 우리 문화와 비슷한 일본의 언론을 살펴보면 혐의자의 이름에는 예컨대 장관, 간사장, 의원, 사장 등 직함을 붙이거나 이름에 바로 ‘혐의자 또는 용의자’로 칭할 뿐이고 결코 우리의 ‘씨’자와 유사한 Mr.·さん·様·君 등을 범죄혐의자의 이름에 붙여주지 않는다. 즉 일본은 ‘△△사건 용의자 ○○○를 수배 중’, ‘○○○수상 △△사건에 혐의’, ‘○○○혐의자’와 같이 표현하고, 서양의 신문과 방송은 ‘Police said Chae committed the crime…. Chae argued that….’로 쓸 뿐 절대로 Mr. Chae라고 부르지 않는다. 언론이 범죄혐의자의 이름에 높임말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씨’자는 ‘성년이 된 사람의 姓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해 부르거나 이르는 말’인데, 이 호칭을 아무 데나 마구 붙이는 우리 관행은 높이거나 대접해 칭하는 ‘씨’자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특히 국민들의 정의로운 감정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2만불 소득시대를 목전에 둘 만큼 물질적인 생활에 선 윤택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물질 이외의 면은 반대로 많이 허물어졌다고 느끼는 것이 부정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전만능 사조에 의해 존경의 대상이 물질화, 천민화되고 국민의 정의감과 존경심이 퇴색됐으며 심지어 人心 속에서 선악의 기준도 변질돼 가는 점이다. 요즘은 매스컴이 지도층 인사의 독직 범죄사건을 크게 보도해도 국민들의 놀라고 公憤하는 반응이 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나만의 착각일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의 혐의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에 ‘씨’자를 붙여서 외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호칭의 名과 實이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닌가! 명실상부하게 호칭을 바로잡아야 사회의 말들이 이치에 맞게 되고, 말이 이치에 맞아야 일이 이뤄질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위정자가 되면 ‘호칭을 바로잡는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씨’자의 호칭이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면 ‘씨’자는 우리나라처럼 아무렇게나 붙여도 좋은 가벼운 말이 결코 아니다. 이는 하루빨리 외국의 용례도 비교해 보면서 名과 實이 합치하도록 언론인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신입생 3천2백71명 입학

"지식탐구로 사회에 공헌해야"

모교 소식

본회서 시집 선물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李長茂총장, 보직교수를 비롯해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許 瑄사무총장, 학부모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金完鎭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농생대 식물생산·산림과학부 張英駿군이 3천2백71명을 대표해 신입생 선서를 했다.

李長茂총장은 식사를 통해 "서울대는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 있는 지식을 탐구해 널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여러분의 정신은 미래와 세계를 지향하고 나아가 태양계를 벗어나 더 큰 우주와도 조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화여대 李御寧(국문52-56)명예석좌교수가 축사에서 동요 '비행기'를 인용해 "대학에 합격한 순간 여러분은 떴지만, 뜨는 것과 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이제부터는 높이 날고 타율의 단계를 넘어 자율의 단계로 부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대 학생들로 구성된 남성 8중창단이 이탈리아 민요 '오 솔레미오(오 나의 태양)'를 불러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올해도 다양한 신입생들이 눈길을 끈 가운데 5세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박수빈(경영학)양이 정시모집에서 당당히 모교에 입학해 화제가 됐다.

2008학년도 신입생은 최종 등록결과 정시모집 합격자 1천5백88명, 수시모집 합격자 1천5백89명, 농어촌특별전형 87명과 특수교육 대상자 7명을 포함해 모두 3천2백71명이다.

올해는 신입생 총 모집인원 3천3백35명 중 3천1백77명이 등록해 95.3%의 등록률(정원 외 모집 제외)을 기록했다. 미대·법대·의대는 모두 등록률 1백%를 기록했다.

한편 본회(회장 林光洙)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모교 대학문학상 수상작을 모은 시집(그 해 여름 안에서의 이별)을 신입생 전원에게 선물했다.

재학생의 소리

선배들이 건립해준 합숙소 매력 만점

姜 大 豪
(전기공학부03입)
모교 스키부 주장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이 세상의 사는 진리 찾는 이 길을…"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강원도 대관령의 이른 아침, 모교 스키부 합숙소 앞에서는 교가를 부르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2009년 모교 스키부 주장을 맡은 姜大豪입니다. 스키부는 1962년 문영현 초대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학교에 등록해 창단됐습니다. 현재 80여 명의 OB 부원들이 졸업 후 사회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10여 명의 재학생들은 YB부원으로서 학업과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키부의 목표는 국내스키대회 및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스키대회에 참여해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최근 알파인 부문에서는 서울컵 국제스키대회 대학부 3위 및 대학스키연맹배 스키대회 3관왕을 이뤘으며, 노르딕 부문에서는 회장배 전국스키대회 계주 2위 및 올해 처음 열린 바사 크로스컨트리대회에서 일반부 1·2·3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동계체전에서는 바이애슬론 부문 서울시 대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스키부 선배들이 출연해 건립해 주신 강원도 횡계 합숙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 합숙이야말로 모교 스키부의 꽃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달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부원들은 서로간의 끈끈한 우정과 소중한 추억들을 가질 수 있으며, 메달을 따기 위한 열정과 노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스키부에는 세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졸업생 환송회, 그리고 교내 노르딕대회가 그것입니다. 이 중 올해로 33회를 맞이하게 되는 교내 노르딕대회는 많은 OB선배님들과 YB부원들이 팀을 나눠 크로스컨트리 계주시합을 벌이는 대회입니다. 꿈과 낭만이 함께 하는 모교 스키부. 부원들의 스키에 대한 애정과 메달을 향한 도전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모교 스키부 파이팅!

중앙도서관

'책, 영혼을 위한 약상자'

중앙도서관(관장 朴明珍)은 4월 28일까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북카페에서 '책, 영혼을 위한 약상자'를 주제로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스트레스나 무력감, 열등감, 적개심, 폭력성 등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 관련도서 1백50여 권과 영상자료를 선보인다. 〈문의 : 880-1375〉

좌로부터 李鎬仁·朴杉沃·李泰鎭·李長茂·鄭晳圭·金信福·孫一根·許鎰·權斗煥 동문

신양인문학술관 개관

인문대학(학장 李泰鎭)은 지난 3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인문대(3동) 부근에 신축된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모교 李長茂총장, 신양학술재단 鄭晳圭(화학공학48-52)이사장,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교직원 및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건물은 인문대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학생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학습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양학술재단 鄭晳圭 이사장이 출연한 30여 억원으로 완공됐다.

李泰鎭학장은 식사에서 "이 건물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신축된 인문대 건물"이라며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신 鄭晳圭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인문대 리모델링 사업도 하루빨리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양인문학술정보관은 7백96㎡ 부지에 연면적 2천9백99㎡ 규모(지하 1층·지상 4층)로 지어졌다.

1층은 스넥코너와 북카페, 2층은 신양문화재단 자료전시실, 모교 기록관전시실과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실 및 인터넷카페, 3층은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국제세미나실과 강의실, 4층은 퇴직교수들이 기증한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고로 사용된다.

이곳은 앞으로 인문대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과 도서관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강의실을 통해 국제세미나와 강연회 등 학술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㉔

故 김세진·이재호 추모비

모교 관악캠퍼스 인문대 2동 부근의 故 김세진(미생물83입)·이재호(정치83입) 열사 추모비. 두 동문은 지난 2월 26일 모교 학위수여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1980년 당시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방부대에 입소해 일주일간 훈련을 받아야 했다. 광주항쟁 이후 '전방부대 입소는 미국에 종속된 용병교육'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두 열사는 1986년 4월 그 거부투쟁을 주도하며 항거의 표시로 분신 자살했다.

潘基文 UN 사무총장에 명예 외교학 박사학위

모교는 지난 3월 10일 潘基文(외교63-67)유엔 사무총장(사진)을 명예 외교학 박사학위 수여자로 선정했다.

潘基文사무총장은 외교관으로 30년 이상 국가에 봉사했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복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모교는 1948년 첫 수여 이래 金壽煥추기경, 소설가 朴婉緖(국문50입)동문, 사사키 다케시(佐佐木毅) 前동경대 총장 등 총 1백4명(외국인 96명, 한국인 8명)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모교는 유엔 사무국 등과 협의해 7월 이후에 명예 박사학위 수여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호대학(학장 尹順寧)은 지난 3월 4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모교 金信福부총장, 成相哲병원장, 간호대동창회 李倫京회장 등 교내외 인사와 재학생 및 학부모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이날 간호대 3학년 재학생 일동은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尹順寧학장은 식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요구의 다양화로 보건의료 체계의 선진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간호대상자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간호학의 지식 기반을 든든히 다지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榮〉

‘SNU 글로벌 인스티튜트’ 설립

외국인 교수 1백명 채용 예정

모교는 올해 안으로 외국인 교수 확충사업 등 대학 국제화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할 ‘SNU Global Institute(국제교육원·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국제교육원을 통해 외국인 교수 관리 및 교육·연구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과·학부·단과대학(원)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악캠퍼스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5천6백㎡ 규모의 ‘롯데 국제교육관’을 지을 예정이다.

이 건물에는 외국인 교수 전용연구실, 세미나실, 국제회의실 등이 들어서며 롯데장학재단(이사장 盧信永)이 건립기금 70억원 전액을 출연했다.

추후에 ‘국제교육관 2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모교 내 외국인 교수는 전체 교수의 1.7%에 불과한 45명이다. 그 중 외국인 전임교수는 10명으로, 성균관대 50명, 연세대 60명, 고려대 8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모교는 국내외에서 실시된 대학평가 중 ‘국제화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모교는 2008년 정부의 국립대 국제화 정책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기존 교원 정원과 별개로 외국인 전임교원 55명을 배정받았다. 여기에 선발 제한이 없는 초빙·겸임교수 등 45명을 추가로 뽑아 총 1백명의 외국인 교수를 충원할 계획이다.

장은 “신규 채용될 외국인 교수 중 20명은 세계 석학급 학자로 채용할 것”이라며 “현재 1995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울 크루첸 박사를 지구환경과학부 석좌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등 구미 지역에 비해 낮은 연봉수준, 높은 주거비용 등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외국인 전임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전기금은 1인당 외국인 전임교수 채용에 8천만원, 단기방문교수 지원에 5천만원, 아시아교수 단기초청에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모교가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1백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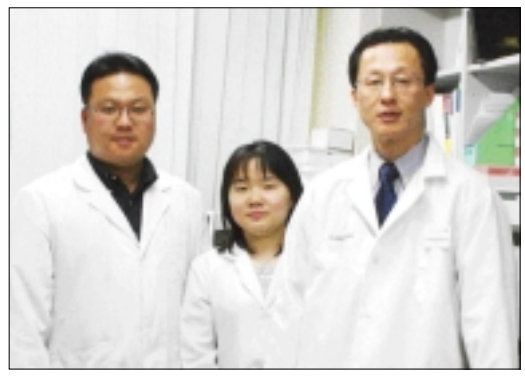
이와 함께 세계 석학급 교수를 비롯해 우수한 외국인 교원을 수용할 숙소 등 최소한의 복지시설 마련에 2백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기금은 우수한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외국 수준의 급여나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교 발전기금 제공〉

약학과 徐榮俊교수 연구실

9년째 ‘젊은 과학자상’ 배출



좌로부터 李正常·金度希연구원, 徐榮俊교수

약학대학 약학과 徐榮俊(제약 77-81)교수 연구실이 9년째 美암학회 연례학술대회의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발암기전 및 분자 암예방 국가지정 연구실’의 박사후 연구원 李正常(농생물94-98)동문과 박사과정 중인 金度希(대학원02-04) 연구원 등 2명은 지난 4월 12~14일까지 美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제99차 美암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우수논문을 제출한 연구원급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2천 달러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李正常연구원은 위암 위험인자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생체 방어기전을 다룬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金度希연구원은 유방암 세포주에서 대표적 종양억제 유전자인 p53 단백질이 고리형 프로스타글란딘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기능 상실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했다.

지난 2000년 千京秀(대학원97-99)박사가 처음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이래 9년 연속 연구실 소속 11명이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 때문에 연구실은 ‘과학자 사관학교’로 불리고 있다.

한편 徐榮俊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사가 발간하는 ‘발암’을 비롯해 ‘국제암학술지’, ‘분자발암’ 등 15개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올해부터 美암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암예방연구’의 편집위원으로 선임됐다.

환태평양지역 대학연합 회의

30개 대학참여 … 교육포럼 개최

모교는 지난 3월 13~14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UCLA, 도쿄대, 칭화대 등 세계 30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APRU Senior Staff Meeting’ 행사를 개최했다.

APRU(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환태평양지역대학연합)는 1997년 결성된 환태평양지역의 주요 37개 대학 모임이다. 교육, 연구, 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환태평양지역의 경제적, 과학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교는 우리나라 대학 중 유일하게 APRU에 가입했으며, 각 대학간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협력, 아이디어 교환을 위해 매년 총장회의, 간부회의,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

13일에는 모교 국제대학원 朴泰鎬원장 등이 패널발표하는 시간을 비롯해 ‘고등교육의 국제화 : 대학 경영, 연구협력 및 확대’를 주제로 각 대학의 국제화 사업 소개시간을 가졌다.

14일에는 학부생 하계 프로그램, 각 대학의 경영대·사범대 학장단 회의 등 APRU 사업과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예정인 연구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차세대융합기술硏 광교신도시에 개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李建雨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이 지난 3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이 연구원은 지하 2층, 지상 16층, 연면적 5만8천5백51㎡의 대규모 연구단지로 모교의 나노, 융합생명공학, 차세대자동차, 지능로봇, 소프트웨어 등 연구소 9개가 입주한다. 이 연구소에서 최첨단 기술인 IT, NT, BT, ET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모교 교수들이 각각 실용화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R&D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성화시켜 21세기 산업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榮〉

수고하셨습니다

정년교수 프로필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20명의 정년식이 지난 2월 29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徐大錫교수·국어국문학

61년 모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79년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해 구비문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모교 국어국문학과장, 한국구비문학회장, 한국고전문학회장, 한국웃음문화학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어국문학회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宋基中교수·국어국문학

61년 모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78년 美하버드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6년 모교에 부임해 국어사와 계통론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모교 규장각 관장, 진단학회장, 한국알타이학회장,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어학회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金秀行교수·경제학

61년 모교 경제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67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2년 英런던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9년 모교에 부임해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모교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사회과학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장, 한국사회경제학회장, 한국발전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申正休교수·화학

61년 경북대 화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獨칼스루허대에서 75년 석사학위, 7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유기화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학생부처장·관악사 사감 등을 역임했다. 申교수는 91년 모교에 처음으로 핵자기공명장치(MRI)를 들여온 바 있다.

洪英男교수·생명과학

60년 모교 식물학과에 입학, 64년 졸업. 78년 獨프라이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식물생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생명과학부장, 한국식물학회장, 한국광과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洪교수는 퇴임 후에도 모교에서 '일반생물학' 강좌를 개설해 강의할 계획이다.

禹鍾天교수·물리천문학

60년 모교 물리학과에 입학, 64년 졸업. 72년 美플로리다주립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에 부임해 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대학원장·국제지역원장·대학원동창회 고문, 대통령교육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진공학회장, 교육부 중앙교육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權旭鉉교수·전기컴퓨터공학

62년 모교 전기공학과에 입학, 66년 졸업. 76년 美브라운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부임해 제어공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모교 관악사 사감·평의원회 의장, 대한전기학회장, 국제자동제어연맹 회장 등을 역임했다. 모교 공대 '훌륭한 공대교수상', 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崔次鑓교수·화학생물공학

61년 모교 화학공학과에 입학, 67년 졸업. 76년 美펜실베이니아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화학공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공업화학과장·생물공학센터 소장, 한국생물공학회장, 통상산업부 생물산업분과 위원장, 교육부 연구비평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秀一교수·농생명공학

61년 모교 농화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69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8년 佛파리6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주대 교수를 역임하고 84년 모교에 부임해 생화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상록사 사감·농생명공학부장·BK사업단장, 한국농화학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全 暾교수·조소

61년 모교 조소과에 입학, 65년 졸업. 79년 美캘리포니아대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 후 조소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미술대학 학생담당 학장보·조형연구소장, 서울조각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11회 김세중조각상을 수상한 바 있다.

尹正一교수·교육학

62년 모교 교육학과에 입학, 66년 졸업. 76년 美일리노이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에 부임 후 교육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모교 사범대 학장·교육연구소장, 교육재정경제학회장,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민족사관고등학교 제6대 교장, 제38대 한국교육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禹正皓교수·수학교육

61년 모교 수학교육과에 입학, 65년 졸업. 70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80년 日히로시마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교대 교수를 역임하고 81년 모교에 부임해 수학교육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수학교육과장, 대한수학교육학회 5·6대 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李基春교수·소비자아동학

61년 모교 가정교육과에 입학, 65년 졸업. 85년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에 부임해 소비자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모교 가정대 학장, 한국소비자학회장, 대한가정학회장, 한국여성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모교 '30년 근속공로상', 한국소비자학회 '공로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千文字교수·약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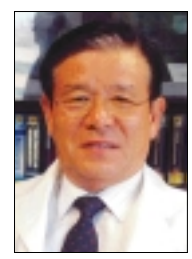
61년 모교 약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68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78년 日오사카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약화학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약학대 학장·약대 약학연구소장·약학교육연수원장·종합약학연구소장, 대한약학회 부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閔丙九교수·의학

61년 모교 전기공학과에 입학, 65년 졸업. 72년 美러트거스뉴저지주립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 후 의공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장,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의공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연구서 '인공장기'와 시집 '안개 속에 화살' 등이 있다.

朴哲圭교수·의학

61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 67년 졸업. 73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 후 성형외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성형외과장, 대한성형외과학회장,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장, 한일성형외과학회장, 아시아태평양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韓大熙교수·의학

61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 67년 졸업. 72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 후 신경외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병원 신경외과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한국신경과학회 부회장, 제5차 한일뇌혈관외과학회장, 서울시립보라매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車昌龍교수·의학

63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 69년 졸업. 78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바이러스면역학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의과대학 학생담당 부학장, 대한미생물학회장, 대한화학요법학회장,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文玉綸교수·보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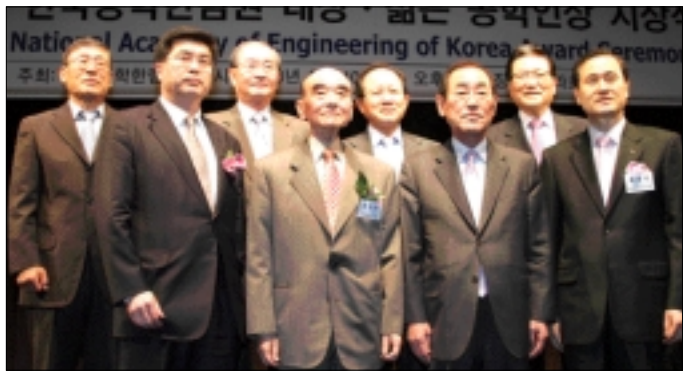
63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 67년 졸업. 69년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에 부임해 보건정책관리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모교 보건대학원장·보건환경연구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대한예방의학회장, 한국보건정책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林岡源교수·환경계획학

62년 모교 기계공학과에 입학, 67년 졸업. 70년 모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4년 美코넬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부임해 교통관리분야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모교 환경대학원장·환경계획학연구소장, 대한교통학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鄭晳圭동문
공학인상엔 車國憲·崔珍奭동문

한국공학한림원(회장 尹鍾龍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및 젊은 공학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좌로부터 崔鎭玟귀뚜라미보일러 명예회장, 車國憲교수, 李基俊공학한림원 명예회장, 鄭晳圭이사장, 許鎭奎공학한림원 이사장, 尹鍾龍회장, 孫炳斗대학교육협의회장, 崔珍奭부사장

이날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에 신양문화재단 鄭晳圭(화학공학 48-52 관악회 이사)이사장, 젊은 공학인상에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車國憲(화학공학81졸)교수와 하이닉스반도체 崔珍奭(AMP 61기)부사장을 각각 선정했다.

鄭이사장은 한국 고무산업을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등 경제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 등의 업적을 높이 인정받았다. 車교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저유전 물질의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崔부사장은 하이닉스반도체의 회생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상 수상자는 1억원, 젊은 공학인상 수상자는 각각 5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燮〉

이낙반도체 崔萬立회장
국내 첫 '쿠베르탱 메달' 수상

金正吉 KOC회장·崔萬立동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崔萬立(행정54입 이낙반도체 회장) 원로자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수여하는 '쿠베르탱 메달'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월 27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54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메달 수여식을 가졌다.

쿠베르탱 메달은 1964년 처음 창설된 것으로 올림픽에서 스포츠 정신을 고취시킨 선수들에게 주는 것. 2004년 브라질 마라톤 선수 반데레이 리마 등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받았다.

스포츠 선수가 아닌 사람이 이 메달을 받은 것은 崔동문이 처음이며 한국인 중에서도 첫 수상이다. 崔동문은 1980년 KOC 명예총무로 임명돼 체육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KOC 부위원장, 대한체육회 부회장, 서울올림픽조직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 유치 등에 기여했다.

동 정

수 상

▲金泰吉(철학46-47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지난 3월 14일 제12회 만해대상(학술부문) 수상자에 선정.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

▲李御寧(국문52-56 前문화부 장관·중앙일보 상임고문)= 지난 3월 14일 제12회 만해대상(문학부문) 수상자에 선정.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

인 사

▲金祥源(농경제52-56 前대법관·법무법인 한누리 고문변호사)= 지난 3월 20일 세계도덕재무장(MRA) 한국본부 총재에 취임.

▲鄭英彩(수의학56-60 대한수의사회장·수의대 동창회장)= 지난 2월 28일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22대 회장에 재선임.

▲李炳馹(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학술원 회원)= 지난 2월 29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한국블루베리협회 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재선임.

▲安國正(사학63-70 前SBS 부회장·본보 논설위원)= 지난 3월 1일 모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에 위촉.

▲辛鉉雄(지리64-68 前문화관광부 차관·새천년문화포럼 회장·본회 부회장)= 지난 3월 18일 웅진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웅진의 초대 이사장에 선임.

▲權載述(물리교육70졸 한국교원대 교수·한국과학교육학회장)= 지난 3월 18일 한국교원대 제8대 총장에 취임.

▲朴明珍(불문65-69 모교 중앙도서관장·본보 논설위원)= 지난 4월 2일 임기 3년의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내정.

▲李元馥(건축66입 덕성여대 시각디자인전공 교수·본보 논설위원)= 지난 4월 1일 덕성여대 예술대 학장에 선임.

▲金智英(식품영양69-73 경희대 생명공학원 교수)= 최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3대 회장에 취임.

▲朴吾銖(경영71-75 모교 경영학과 교수·모교발전기금기획단장)= 지난 3월 14일 임기 1년의 한국경영학회 회장에 취임.

▲辛京珉(사회71-75 MBC 보도국 선임기자·본보 논설위원)= 지난 3월 24일부터 MBC 오후 9시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 평일 앵커로 진행.

▲裵英熏(기계설계75-79 前니트젠 대표·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지난 3월 24일 기륭전자 대표이사에서 선임.

▲李春熙(행대원79-85 前건설교통부 차관)= 지난 3월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원장에

선임.

▲李相起(서양사학81-87 한겨레신문 스포츠부문 편집장·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13일 한겨레신문 사람팀 편집장에 선임.

▲張明宇(치의학83-89 前네브라스카대 석좌교수·하버드대 교수)=최근 미국 치과의사 자격 국가고시 출제위원에 위촉.

▲薛均泰(행대원88-90 삼성화재해상보험 고문)=지난 3월 23일 순창 설씨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제13대 대종회장에 선출.

▲韓祐三(AMP 34기 태양금속공업 회장)=지난 3월 17일 경기도 안산상공회의소 제9대 회장에 취임.

▲盧喜燦(ACAD 33기 삼일방직 회장)=지난 3월 7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임.

▲曺奉鉉(ACAD 55기 대현산업 대표)=최근 임기 4년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3대 회장에 재선임.

▲金玄洙(HPM 2기 강추한의원 장)=지난 3월 16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제39대 회장에 선출.

▲李正煥(ALP 3기 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지난 3월 20일 증권선물거래소 주주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임.

행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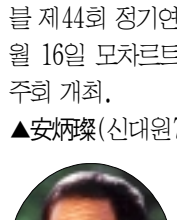
▲鄭晳圭(화학공학48-52 신양문화재단 이사장·관악회 이사)=지난 2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공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제10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2억4천5백만원을 신양장학금으로 전달.

▲盧信永(법학50-5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지난 3월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4개 대학 한국학과 대학생 20명에게 장학금 전달.

▲李奭熙(행정51-55 石吾 李東寧선생기념사업회장)=지난 3월 13일 서울 효창공원에서 石吾 李東寧선생 순국 68주기 기념추모제전 개최.

▲李玉姬(기악60-64 서울튜티앙상블 음악감독·피아니스트)=지난 3월 20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서울튜티앙상블 제44회 정기연주회 개최. 또 5월 16일 모차르트 피아노 전곡 연주회 개최.

▲安炳璨(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아시아기자협회 고문·본보 논설위원)=최근 서울인사동 관훈클럽 회관에서 '네트워크사회의 인권침해와 언론' 주제로 토론회 개최. 또 '안병찬, 르포르타주 저널리스트의 탐험'(커뮤니케이션북스刊) 출간.



▲李珉柱(회화76-80 삼심아트 대표·경희대 겸임교수)=지난 3월 1~29일 미국 필라델피아 Fine Arts People갤러리에서 제33회 개인전 개최.

▲金在美(기악84-88 건국대 교수)=지난 4월 8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사계 '봄'을 주제로 라벨, 라흐마니노프,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 개최.

▲孫 勳(토목공학88-92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개교 이래 처음으로 재임 중인 부교수로서 테뉴어(정년보장) 심사 통과.

▲梁松美(성악95-99 메조소프라노)=지난 4월 14일 서울 세종체임버홀에서 비발디,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귀국독창회 개최.

▲金泰完(ACAD 44기 한민족평화포럼 상임대표)=지난 3월 15일 충남 천안시 문화동정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자매결연 및 한마당 축제 개최.

▲金基星(ACAD 52기 서울시의회 부의장)=지난 2월 22일 서울시립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시스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 받음.

〈최근 임명된 모교 출신 장·차관급〉

직 위	성 명	전공 / 연도	전 직	비 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司空壹	상학58-64	대통령 특별보좌관	장관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崔時仲	정치57-6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全光宇	경제69-73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梁 建	행정66-70	한양대 교수	〃
국무총리실장	趙重杓	영문71-75	외교통상부 1차관	〃
법제처장	李石淵	대학원81-91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차관급
기획재정부 1차관	崔重卿	경영75-79	세계은행 상임이사	〃
기획재정부 2차관	裵國煥	행대원80-85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禹亨植	사회교육75-79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
외교통상부 1차관	權鍾洛	외교68-72	주아일랜드 대사	〃
외교통상부 2차관	金星煥	경제72-76	주오스트리아 대사	〃
통일부 차관	洪良浩	ACAD 63기	남북회담사무국 회담대표	〃
법무부 차관	文晟祐	법학75-79	법무부 검찰국장	〃
행정안전부 2차관	鄭男埈	행대원82-86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金長實	행대원79-81	문광부 종무실장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申載旻	정치77-82	조선일보 출판국 부국장	〃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朴德培	해양72-79	국립수산과학원장	〃
지식경제부 1차관	林采民	서양사학77-81	중소기업특위 정조실장	〃
지식경제부 2차관	李載勳	경제74-78	산자부 2차관	〃
여성부 차관	李仁植	경영72-79	여성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국토해양부 1차관	權度燁	토목공학72-76	한국도로공사 사장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朴鐵坤	AMP 60기	국무조정실 기획조정관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金永哲	농화학65-69	에너지관리공단 이사	〃
관세청장	許龍錫	대학원88졸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
통계청장	金大棋	경제75-79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
문화재청장	李健茂	고고인류65-69	前국립중앙박물관장	〃
산림청장	河榮帝	농업교육74-78	경남 남해군수	〃
중소기업청장	洪錫禹	무역74-80	산자부 무역투자본부장	〃
기상청장	鄭淳甲	기상73-77	기상청 차장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尹汝灼	제약76-80	충북대 교수	〃
국사편찬위원장	鄭玉子	사학61-65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	〃
중앙공무원교육원장	鄭章植	경제69-73	前포항시장	〃
소청심사위원장	姜秉圭	행대원77-79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	〃
국가정보원 1차장	全玉鉉	외교75-79	국가정보원 해외국장	〃
국가정보원 2차장	金會瑄	법학74-78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가정보원 3차장	韓基範	역사교육79卒	국가정보원 북한정보실장	〃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金周成	AMP 30기	세종문화회관 사장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朴仁濟	행정71-75	변호사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李昌鏞	경제80-84	모교 경제학부 교수	〃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徐東源	법학72-76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李秉基	전자공학70-74	모교 전기공학부 교수	〃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합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질병이 탄생시킨 명화
— 文國鎭 지음

법의학자인 文國鎭(의학49-55 고려대 명예교수)동문이 질병 때문에 탄생한 걸작들의 비화를 소개한 책.

文동문은 거장들 가운데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릅쓰고 작품 활동을 한 화가가 있는가 하면,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전연 모르고 작품활동을 한 화가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화가들의 질병과 작품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클로드 모네, 빈센트 반 고흐, 에드가 드가, 에드바로트 뭉크 등 거장들의 전기와 병적 기록을 면밀하게 조사해 그들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했다. 〈자유아카데미刊·값25,000원〉

한국 근·현대사
— 교과서포럼 지음

모교 경제학부 李榮薰교수, 국민윤리교육과 朴孝鍾교수, 환경대학원 全相仁교수,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金暎浩·金容稙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과서포럼'이 개항(1876년) 이후 한국인의 삶을 기록한 역사서를 펴냈다.

도서출판 기파랑(대표 安秉勳)에서 출간한 이 책은 현행 고등학교용 교과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게 태어난 나라인지, 지난 60년간의 건국사에서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기존과 다르게 바라본다. 〈기파랑刊·값15,000원〉

뇌를 알면 공부가 쉬워져요!
— 曺洙哲 공저

모교 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曺洙哲(의학 67-73) 교수가 뇌의 중요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과학학습만화를 출간했다.

이 책은 '궁금이'라는 호기심 많은 어린이가 의사인 삼촌 '유식한' 박사와 함께 뇌에 대한 궁금증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방식으로, 어려운 과학학습을 만화와 사진을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집필했다.

인체의 중요기관인 뇌에 대한 비밀이 소개된 이 책은 △뇌의 생김새, 무게, 기능 등 전반적인 뇌의 정보 △0세부터 5세까지의 두뇌발달 과정 △뇌를 단련하는 법, 기억력 향상법 △뇌 연구의 발달역사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효리원刊·값8,900원〉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 李永大 지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李永大(농업교육75-79)연구위원이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과 진일보한 인생을 위한 성공지침을 내놓았다.

이 책은 능력 있는 회사원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李동문이 2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후 느낀 것들, 기업체와 대학 및 관공서에서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한 경험들을 종합한 것.

성공한 회사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점을 명심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각자가 일에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마음자세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어떻게 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평범함에서 탁월함의 경지로 올라서는 비결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코노믹북스刊·값10,000원〉

여자가 기자가 된다
— 沈良燮 편저

경향신문·조선일보 기자를 지낸 沈良燮(동양사학80-87 인터넷커뮤니터 송알송알 공동대표)동문이 입사부터 중견기자로 성장하기까지 여기자가 부딪힐 현실적인 문제들을 꼼꼼하게 짚어낸 종합안내서.

여기자라는 직업의 실상과 전망, 언론계의 차별과 관행, 처세술과 차별 극복 방안, 언론고시 전략과 노하우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했다.

공 연

목관5중주 I-Group '만남시리즈 III' 음악회
— 4월 22일 모교 예술관 27일 한국예종/28일 연세대

목관5중주 I-Group이 베토벤, 이베르, 힌데미트, 무진스키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목관앙상블 음악의 새로운 세계를 선보인다.

바수니스트 林聖勳(기악85-89 부천시립교향악단 수석)·클라리네스트 桂嬉禎(기악88-92 ICM페스티발 음악감독)·호르니스트 李碩埈(기악90-95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동문 등으로 구성된 아이그룹이 소개하는 '만남시리즈'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기획공연이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하프시코디스트 高賢珠 바하 건반음악 전곡연주
— 4월 26일 예술의 전당

하프시코디스트 高賢珠(기악83-87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동문이 4월 26일 오후 5시 서울신문로 문호아트홀에서 바하의 건반음악 전곡을 연주하고 해설한다.

바하의 건반음악은 연주매체가 피아노일 때와 하프시코드일 때 그 연주기법과 해석 그리고 감상의 기준이 달라진다. 피아노 연주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바하의 음악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특히 崔恩喜(한국 최초 여기자), 尹浩美(前조선일보 편집부국장), 柳漱烈(前방송위원), 辛然淑(서울신문 대기자), 金恩慧(前MBC 기자), 黃政美(세계일보 정치전문기자), 許文明(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국내 전·현직 기자의 인터뷰와 전 세계 여기자의 활약상은 여기자들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독자들을 이끈다. 〈커뮤니케이션북스刊·값15,000원〉

세계 최고의 여자 힐러리論
— 鄭星姬 옮김

맥길대 역사학과 길 트로이 교수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힐러리의 모든 연설과 저술을 조사해 분석한 학술서.

동아일보 鄭星姬(국사82-86)논설위원이 우리말로 옮겨 늘봄출판사(대표 趙楡顯 수학82-88·신문학86-90)에서 펴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아칸소 주지사 부인의 시절부터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10년의 시간까지 그녀가 품었을 인간적이며 철학적인 고뇌에 고개를 끄떡이게 된다. 또한편으론 자신의 인간적이며 철학적인 고뇌로부터 비롯된 정책들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동분서주하는 그녀의 모습에선 전형적인 정치인의 얼굴을 읽게 된다. 〈늘봄출판사刊·값18,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8-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회(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종(경제학59-63)
△김정식(통신공학48-56)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자행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48-52)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2억원
△이종기(경영학69-73)
△장학순(토목공학46-50)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촌5부자
◆1억2천만원
△엄병윤(외교학60-64)
◆1억1천만원
△수학과동창회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묵(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성훈(기계공학58-63)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6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9천만원
△곽동헌(법학61-65)
◆8천만원
△미술대학동창회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화학과동창회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종기(생물교육51-55)
△김종헌(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윤(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이종헌(경제학59-65)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효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농대 일산회
△한우리SJM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흥일(영어교육60-64)
△심형윤(토목공학52-56)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악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송명호(자원공학59-65)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1천2백만원
△강응선(치의학78-84)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졸)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6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박준욱(약학55-59)
◆1천30만원
△심이택(화학공학57-63)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i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종(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종서(경제학58-63)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류태환(상학48-54)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회(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백사익(채광학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악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성백전(토목공학52-56)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안경상(행정학57졸)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유희춘(상학49-55)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병재(경대원69졸)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윤(영어영문50졸)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인기(지질과학62-66)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창원(법학55-60)
△이형하(법학74-78)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익용(기계공학54-58)
△장자준(의학70-77)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정길(금속공학52-56)
△최준기(조선항공57-61)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한규택(원자핵공73-77)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함정호(행정학53-57)
△허 선(정치학64-68)
△허성길(경제학60-64)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월 27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4백50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2백만원
△오복동(법학57-63)
△황의인(법학74-78)
◆1백10만원
△이경보(토목공학46-50)
◆1백만원
△김석건(농경제학50-55)
△김용운(치의학62-68)
△박향숙(응용미술58-62)
△배상경(경제학56-61)
△신필재(약학55-59)
△이정우(독어교육64-71)
△이헌식(화학73-78)
△정광섭(상학66-74)
△조성근(행대원61졸)
◆80만원
△박남훈(외교학68-75)
△서병규(행대원88-92)
△유승규(기계설계76-80)
◆70만원
△이병효(공업교육63-67)
△이윤하(제약학77-85)
△하순봉(독어교육60-64)
◆50만원
△김정근(수의학50-59)
△이춘구(생물교육54-58)
△최흥락(경제학57-61)
◆40만원
△문양수(언어학59-63)
△문창환(기계설계75-79)
△연대성(영어교육60-64)
△이기상(의학73-79)
△이재숙(국악59-63)
△이재원(법학76-80)
△이철근(조선항공58-64)
△이혜전(기악79-83)
△이희주(치의학67-73)
△임재원(국악76-80)
△장만화(경제학56-61)
△전광우(경제학69-73)
△정원박(대학원74-81)
△최성규(국사학92-99)
△한광세(법학60-64)
◆35만원
△우성규(사학63-70)
◆30만원
△강태형(법학57-61)
△김남용(축산학53-57)
△김병찬(치의학69-75)
△김윤영(치의학58-62)
△김주호(전기공학58졸)
△김창수(상학66-70)
△김희상(외교학69-73)
△류시열(법학57-61)
△박만호(행정학57-62)

지난 호 27면 장학빌딩 기금 출연자 명단 중 심영보(의학55-61)동문의 출연금을 '1억2천만원'이 아닌 '1천2백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박송자(화학교육63-67)
△박옥련(치의학53-57)
△박종달(체육교육49입)
△박종일(조선항공47-51)
△배길훈(철학65-70)
△서돈양(법학56-60)
△서선호(SGS 4기)
△선석문(금속공학68-72)
△손무익(전기공학68-76)
△송국헌(경제학56-62)
△송규정(사학63-67)
△신동철(화학교육59-63)
△신명균(법학62-66)
△안기원(기계공학68-70)
△우두헌(상학61-67)
△유명철(의학61-67)
△윤교중(행정학65-72)
△윤일영(법학52-56)
△윤지원(상학59-65)
△이기배(법학71-75)
△이용일(사회사업66-73)
△이정호(치의학60-66)
△이정환(의학50-56)
△이종승(교육학65-69)
△이치섭(농화학56-62)
△이홍기(농업교육67-71)
△장화진(회화69-73)
△정문기(대학원81-83)
△정진택(의학46-50)
△최승주(섬유공학56-60)
△최영상(영어교육56-61)
△최재열(화학공학69-73)
△최호경(AMP 28기)
△한덕수(경제학67-71)
△한동우(법학66-70)
△한응렬(치의학59-65)
△호문익(화학61-65)

◆25만원

△이선동(보대원86-88)

◆23만원

△진재관(역사교육79-83)

◆20만원

△김기원(섬유공학59-63)
△김태정(재료공학69-73)
△박종석(상학61-69)
△이종하(AIP 9기)
△정진수(전기공학67-71)
△한상식(경제학75-79)

◆17만원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정재관(화학공학57-61)

◆15만원

△김종천(농학53-57)
△이용택(전기공학72-79)

◆13만원

△김순영(ACPMP 3기)
△박용수(의학85-90)

◆12만원

△김경일(ALP 3기)
△김선미(식품영양75-79)
△김윤원(의학75-81)
△김정구(농화학84-88)
△윤기숙(기악82-86)
△윤태걸(수의학58-62)
△정대수(신대원61-70)
△정수봉(임학60-65)
△조장호(언어학61-65)
△최근수(법학81-85)
△한홍진(대학원92-94)

◆11만원

△박명기(물리학57-63)
△박병근(대학원92-94)
△성봉주(체육교육84-89)
△이영진(법학72-76)
△장익상(AMP 25기)
△정승용(의학83-89)

◆10만원

△강말룡(ABP 26기)
△강성봉(수의학68-72)
△강순선(농화학56-62)
△강종원(행정학56-60)
△강춘식(금속공학55-59)
△고광직(상학51-55)
△고석렬(화학공학52-56)
△권동환(ALP 2기)
△권은민(사법학82-86)
△권태진(기계공학71-75)
△길정천(토목공학45-48)
△김갑주(치의학64-70)
△김경수(생물교육60-64)
△김광태(HPM 2기)
△김근수(정치학65-72)
△김남철(지구과학72-76)
△김동만(GLP 15기)
△김병기(상학54-59)
△김병기(치의학61-67)
△김병실(AMP 2기)
△김상진(미생물학71-75)
△김상희(경제학69-73)
△김성기(농경제학58-64)
△김성훈(농경제학58-63)
△김세영(원자핵공70-74)
△김신행(행정학61입)
△김양오(섬유공학71-75)
△김영대(SGS 12기)
△김영숙(간호학55졸)
△김영진(전기공학53-57)
△김영춘(경영학71-75)
△김용수(화학59-63)
△김용포(법학61-65)
△김우섭(섬유공학68-72)
△김우영(의학43-49)
△김원주(행정학53-57)
△김윤제(토목공학62-66)
△김의식(상대전문46-49)
△김인배(대학원68졸)
△김재경(기계항공97-01)
△김재동(조선공학70-74)
△김재운(AMP 31기)
△김제완(물리학54-58)
△김종무(농공학57-63)
△김종엽(AMP 28기)
△김좌상(보대원60졸)
△김준언(AMP 34기)
△김중구(AMP 25기)
△김창식(ACAD 45기)
△김채숙(간호학66졸)
△김혜수(섬유공학64-71)
△김호탁(농경제학58-64)
△김희영(농화학62-66)
△류성언(화학80-84)
△류영하(AMP 46기)
△문택상(법학50-54)
△박기정(사회학61-68)
△박남영(보대원59-60)
△박동만(토목공학58-63)
△박병룡(경제학80-84)
△박상래(화학교육52-56)
△박원춘(화학공학49-59)
△박의남(조선공학49-53)
△박춘배(의학72-79)
△박충차(치의학62-68)
△박혜옥(약학69졸)
△박효성(법학61-65)
△박희옥(의학54-60)
△백영자(응용미술64-68)
△백학기(섬유공학52-56)
△변중섭(정치학48-52)
△변창세(의학69-78)
△서동홍(경대원72졸)
△서동화(제약학69-73)
△서정겸(농업교육67-71)
△성시탁(법학52-56)
△손병웅(ABP 6기)
△송기언(잠사학55-60)
△송주철(광산학56-61)
△신동인(제약학82-86)
△신명희(의학56-62)
△신상한(법학75-79)
△신선호(경영학72-79)
△신섭중(정치학52-56)
△신용문(국악70-78)
△신우식(AMP 24기)
△신현길(응용물리65-69)
△신효순(기계공학57-61)
△심재형(식물학58-63)
△안문자(조소57-61)
△안인환(건축학71졸)
△양 영(행정학62-66)
△어복선(정치학52-58)
△여인곤(대학원79졸)
△염정임(독어독문63-67)
△예길촌(원자력공61-65)
△예재두(행대원78졸)
△오동일(작곡54-58)
△유무웅(전기공학58-64)
△유문억(법학54-58)
△유석형(농공학58-64)
△유시수(AMP 25기)
△유해돈(행정학55-61)
△유홍열(ACAD 36기)
△윤동열(화학교육69-73)
△윤명상(상학64-71)
△윤수원(광산학54-57)
△윤여훈(상학67-71)
△윤재영(AIP 36기)
△이강명(건축학65-70)
△이계홍(농공학56-62)
△이교상(섬유공학66-70)
△이귀향(회화51-56)
△이규화(금속공학68-72)
△이근희(AIP 26기)
△이능규(산업공학69-76)
△이동우(수학58-63)
△이번영(중어중문56-61)
△이범철(기계공학65-67)
△이수홍(정치학49-59)
△이영우(경제학57-62)
△이재호(약학72-77)
△이종만(AMPP 5기)
△이종삼(식품공학82-89)
△이종성(의학62-69)
△이종신(행정학63-70)
△이종우(치의학99-03)
△이채주(법학53-57)
△이태영(농경제학54-58)
△이필곤(경제학59-65)
△이희경(사회학59-63)
△이희재(무역학69-77)
△임상병(농경제학65-69)
△임성빈(농경제학57-63)
△임성수(HPM 14기)
△임종식(법학79-83)
△장승태(행대원61졸)
△장재일(광산학48-56)
△전봉우(AMP 40기)
△전상기(AMP 2기)
△정두영(AIP 32기)
△정민현(농경제학55-62)
△정봉수(기계공학59-63)
△정선용(임학59-63)
△정소영(상학51입)
△정영삼(산업공학70-74)
△정우창(농공학54-58)
△정육상(ACAD 63기)
△정의용(외교학64-68)
△정지태(행정학58-63)
△정태산(의학53-59)
△조성일(법학61-65)
△조영선(금속공학63-67)
△조은분(강습42졸)
△조장래(공업교육69-73)
△조재석(행정학56-60)
△조정화(사학58-62)
△주강수(지질학64-68)
△주진학(법학54-58)
△차금렬(화학공학59-65)
△천병기(AMPFRI 19기)
△최동섭(의학69-75)
△최봉석(경영학70-74)
△최삼현(AMPFRI 2기)
△최선주(토목공학59-63)
△최성재(영어교육85졸)
△최수부(AMP 15기)
△최영남(섬유공학53-57)
△최왕언(AMP 23기)
△최원우(독어독문65-71)
△최진규(치의학87-91)
△최형준(법학51-56)
△추성엽(해양학75-79)
△하성대(법학49-52)
△하정길(AMP 6기)
△한상욱(농공학55-61)
△한연수(국어교육60-64)
△한정주(불어불문84-88)
△한형건(법학49-54)
△허성용(상학54-58)
△현봉섭(기계공학49-54)
△현영희(영어교육57졸)
△홍명희(기악65-70)
△홍석기(AIC 9기)

〈이상 2008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08년 1·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7. 12. 28.~08. 1. 23)·일반(07. 12. 29.~08. 1. 24)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고상언 AIP⑪ △공병채 공대㊷
△김 동 상대㊹ △김덕수 공대㊶
△김도선 법대㊵ △김병동 농대㊷
△김상근 법대㊽ △김상주 공대㊾
△김상화 AIP⑧ △김수관 사대㊵
△김수필 상대㊷ △김영곤 SGS⑥
△김영천 AMP㉚ △김재철 상대㊵
△김적승 司院㊾ △김정한 농대㊺
△김중웅 법대㊵ △노경래 법대㊶
△문헌일 AIC⑥ △박금주 농대㊶
△박남훈 문리㊽ △박세만 상대㊺
△박진수 AMP㊻ △박춘영 치대㊵
△박현수 경영㊵ △배은희 자연㊾
△배재욱 법대㊹ △변정환 大院㊶
△석학진 상대㊽ △성주형 법대㊽
△송기덕 공대㊷ △신면우 의대㊽
△안경태 상대㊶ △양동관 법대㊼
△여동영 법대㊵ △우성일 의대㊼
△원용훈 상대㊸ △유연철 大院㊶
△유창용 의대㊷ △윤덕보 HPM①
△이계욱 상대㊷ △이규재 공대㊼
△이기태 사대㊾ △이기택 치대㊾
△이완근 AMP㉗ △이재천 법대㊷
△이전배 상대㊾ △이정빈 법대㊺
△이창원 법대㊺ △이창한 공대㊺
△이천수 법대㊶ △이형하 법대㊹
△이황수 공대㊶ △임한조 문리㊼
△임헌정 음대㊿ △장세진 상대㊼
△장원갑 공대㊸ △장윤석 법대㊽
△장재헌 HPM⑮ △장치영 치대㊺
△정연세 공대㊸ △정희자 AIC⑧
△조소영 保院㊻ △조영식 수의㊿
△조충휘 공대㊸ △주영숙 치대㊺
△최종명 공대㊻ △최종원 공대㊿
△최진영 공대㊽ △한동수 의대㊾
△한원호 의대㊷ △한준호 법대㊽
△한창은 법대㊾ △현정원 AIP⑲

〈일반〉

△강대균 문리㊾ △강동균 공대㊿ △강신우 법대㊾
△강완모 공대㊽ △강인흥 사대㊿ △강자현 SGS②
△강종호 농대㊿ △강지영 사대㊷ △강현민 공대㊹
△강현석 공대㊹ △고정숙 약대㊷ △고중원 음대㊸
△고후상 공대㊺ △공상구 미대㊼ △곽무근 법대㊹
△곽무영 농대㊽ △곽영호 의대㊽ △구형진 의대㊼
△국전표 공대㊿ △권 성 법대㊿ △권도엽 行院㊻
△권오석 AMP㊶ △김강년 문리㊹ △김경래 ACAD⑱
△김경수 사대㊿ △김광남 공대㊶ △김규병 법대㊶
△김기만 AMP㊸ △김내성 문리㊺ △김동욱 인문㊽
△김록권 HPM④ △김명만 ACPM④ △김명수 상대㊸
△김명환 자연㊸ △김민희 공대㊶ △김병직 사회㊻
△김병협 공대㊽ △김상덕 의대㊷ △김상덕 의대㊸
△김상엽 치대㊶ △김상환 AMP㊷ △김석겸 AIP㊱
△김석만 문리㊼ △김성훈 경영㊷ △김세영 공대㊶
△김수진 음대㊽ △김승욱 미대㊷ △김신섭 大院㊹
△김신희 사대㊽ △김양오 공대㊶ △김영재 인문㊷
△김영호 사대㊹ △김영훈 치대㊻ △김욱환 자연㊼
△김인숙 사대㊶ △김재호 AMP㊷ △김종길 치대㊻
△김종만 의대㊶ △김종환 공대㊼ △김주태 경영㊹
△김준호 법대㊶ △김중호 의대㊽ △김지영 인문㊷
△김차서 AMP⑲ △김창렬 경영㊶ △김채범 ACPM③
△김철웅 사대㊸ △김철호 GLP⑭ △김태연 사회㊾
△김태전 문리㊹ △김태훈 사회㊽ △김택중 사대㊹
△김현숙 AMP㉞ △김형우 치대㊿ △김형육 AIP㊲
△김형일 의대㊿ △김혜정 문리㊻ △김희관 법대㊷
△나현주 경영㊶ △노광표 상대㊸ △노동영 의대㊺
△노민철 AMFR⑳ △노재영 사대㊶ △문근주 공대㊸
△문상철 생활㊽ △문용일 음대㊷ △민동필 문리㊹
△박경렬 공대㊽ △박경은 농생㊿ △박도성 공대㊹
△박동혁 공대㊾ △박동휘 GLP⑭ △박미경 생활㊹
△박미례 GLP⑮ △박미미 문리㊻ △박병식 수의㊺
△박병원 법대㊶ △박상언 공대㊶ △박상은 자연㊹
△박상훈 공대㊸ △박성렬 농대㊺ △박순영 자연㊽
△박순찬 사회㊿ △박승영 문리㊶ △박승우 AMP㊶
△박인자 사대㊻ △박재영 사회㊺ △박재우 자연㊺
△박정남 공대㊸ △박종권 ACAD㉘ △박종춘 GLP⑬
△박준택 공대㊷ △박충원 자연㊼ △박치우 경영㊽
△박필선 농생㊿ △박효순 사대㊻ △박흥식 AFB⑦
△박희옥 의대㊹ △배복태 공대㊿ △배성철 AFB⑦
△배원섭 GLP⑭ △백승천 공대㊼ △백승호 인문㊼
△백형기 사회㊿ △변성윤 사회㊶ △서병무 치대㊷
△서상수 법대㊿ △서정삼 인문㊶ △서진호 공대㊻
△서홍숙 사대㊿ △서희석 법대㊶ △선은두 자연㊼
△성수자 HPM⑲ △성진호 공대㊺ △손익수 법대㊻
△손정훈 사대㊿ △송기준 수의㊾ △송창록 공대㊻
△송춘영 ALP⑤ △신경식 법대㊷ △신구현 大院㊷
△신국호 AIP㊲ △신서원 공대㊶ △신수영 생활㊼
△신승호 사회㊽ △신용문 음대㊿ △신종윤 공대㊻
△신현영 문리㊷ △신희철 의대㊺ △심정보 大院㊸
△안재환 미대㊷ △양인성 APC⑨ △양홍석 경영㊶
△여상인 사대㊾ △염덕순 AMFR⑳ △염원섭 법대㊿
△오달균 자연㊶ △오덕영 AMP⑧ △오연상 의대㊺
△오용록 음대㊷ △오재승 법대㊿ △오정균 保院㊷
△오창석 법대㊹ △오태곤 AMP⑧ △우본형 상대㊾
△우현진 사회㊼ △원종갑 AIP㉑ △원호영 공대㊾
△원황상 문리㊾ △유경희 공대㊷ △유광호 공대㊺
△유동원 AIP㊱ △유승배 AMFR⑳ △유영성 AIP㊲
△유영은 공대㊻ △유주현 약대㊶ △윤도식 법대㊺
△윤동노 AMFR⑥ △윤삼기 AIP㊱ △윤선구 자연㊷
△윤성근 공대㉔ △윤수복 AMP㊸ △윤승현 AIP㊱
△윤원재 의대㊺ △윤윤식 GLP⑮ △윤인영 의대㊻
△윤종숙 치대㊽ △윤혜숙 미대㊹ △이공욱 사대㊶
△이광우 농대㊻ △이기봉 사대㊹ △이기춘 생활㊶
△이덕길 문리㊷ △이동훈 농대㊽ △이련기 상대㊽
△이무영 농대㊾ △이민수 법대㊶ △이병대 AMP㊼
△이상범 농대㊽ △이상하 공대㊷ △이상호 AIP㊲
△이선주 의대㊿ △이신영 생활㊽ △이영선 약대㊺
△이영숙 의대㊺ △이완섭 사대㊿ △이원복 AMP㊼
△이은봉 의대㊻ △이은호 사대㊼ △이응숙 공대㊻
△이의성 공대㊻ △이인원 新院㊽ △이재규 상대㊺
△이재인 AMP㊷ △이정무 공대㊽ △이정웅 공대㊾
△이종덕 사대㉓ △이종철 GLP⑭ △이준도 문리㊼
△이준용 공대㊸ △이충웅 공대㊹ △이현주 의대㊸
△이호진 사회㊶ △이화지 미대㊿ △이흥식 상대㊻
△임 업 사회㊽ △임미영 미대㊼ △임상준 농대㊺
△임승순 법대㉓ △임용택 농대㊹ △임이균 약대㊶
△임종혁 공대㊿ △임헌학 ACAD㊶ △임화섭 자연㊿
△장상익 사회㊺ △장용국 법대㊶ △장운영 법대㊺
△전 괄 경영㊻ △전경능 자연㊾ △전남석 사대㊾
△전병두 의대㊷ △전익성 공대㊻ △정남연 AMP㉑
△정덕교 AFB⑦ △정덕진 AFB⑦ △정동주 인문㊿
△정명교 인문㊺ △정상용 ALP⑥ △정신모 문리㊸
△정아영 의대㊹ △정영주 인문㊼ △정우남 大院㊶
△정원희 공대㊾ △정유성 ALP⑥ △정육상 ACAD㊸
△정재민 약대㊼ △정조흥 상대㊶ △정종률 사대㊾
△정종욱 공대㊿ △정진철 行院㊾ △정춘자 음대㊽
△정회정 경영㊹ △조선희 간호㊷ △조영돈 공대㊻
△조용섭 농대㊹ △조위민 음대㊾ △조재경 자연㊹
△주기식 법대㊹ △주원석 사회㊽ △지규훈 AIP㊱
△진헌진 경영㊶ △채수철 법대㊼ △최 훈 공대㊸
△최규엽 법대㊿ △최길룡 문리㊿ △최봉락 공대㊽
△최선주 공대㊾ △최선호 공대㊾ △최수봉 공대㊻
△최순원 상대㊺ △최영자 사대㊺ △최용창 치대㊶
△최용학 사대㊶ △최정봉 HPM⑪ △최정진 인문㊶
△최창호 법대㊹ △최택성 공대㊺ △추현식 AIP㉜
△하정길 AMP⑥ △한문혁 법대㊿ △한상식 사회㊺
△한상희 공대㊻ △한승수 行院㊸ △함기창 상대㊼
△함진자 음대㊸ △허동호 사회㊺ △허철부 經院㊼
△허택원 법대㊿ △현해관 상대㊼ △홍승환 자연㊹
△홍현민 공대㊺ △황건식 농대㊸ △황규백 공대㊸
△황규엽 의대㊷ △황성욱 AFB⑦

이 사

◆인문대 △설 한㊻ △이선일㊾ △조응래㊼
◆사회대 △구영수㊿ △김 호㊻ △김부성㊸ △김익성㊺ △성은식㊻ △이건희㊸ △최경진㊸ △황기호㊼
◆자연대 △이순걸㊾ △이태립㊼ △최진우㊺
◆경영대 △송영태㊾
◆공대 △고 건㊼ △권장혁㊼ △김동규㊺ △김명근㊸ △김호성㊶ △방수일㊹ △변선호㊾ △서태석㊻ △설영화㊺ △송춘영㊼ △신기룡㊿ △신용락㊺ △양정웅㊽ △원종환㊷ △원준희㊾ △윤재석㊾ △이관수㊽ △이상룡㊿ △이신옥㊷ △이영재㊾ △이정인㊾ △이종현㊼ △이종호㊾ △이주범㊻ △이주선㊹ △정동운㊹ △정한모㊶ △조항주㊿ △진영춘㊼ △최 연㊽ △최규명㊼ △현정훈㊻ △홍광표㊹
◆농대 △권명구㊽ △김상국㊶ △이규승㊼ △이병일㊼ △이현법㊼
◆문리대 △김영배㊷ △김영웅㊸ △김종하㊼ △김치수㊿ △김하진㊽ △박하진㊼ △엄병윤㊿ △오제운㊾ △장영섭㊼ △정낙찬㊾ △조용주㊼ △주승택㊸ △최종덕㊷ △한우석㊶ △황인광㊸
◆미대 △곽순화㊷ △최명애㊿
◆법대 △강대석㊼ △김경일㊷ △김나복㊺ △김동원㊷ △김수남㊽ △김용환㊿ △김인중㊻ △김인호㊿ △김형배㊶ △김환수㊷ △명로승㊺ △박성귀㊶ △변득수㊸ △신동희㊹ △신상규㊽ △안성회㊻ △오세빈㊽ △유덕택㊹ △윤영철㊻ △윤용호㊶ △이동춘㊾ △이사묵㊻ △이성웅㊶ △이인재㊸ △이종순㊼ △임인택㊽ △정재룡㊺ △차한성㊷ △천성관㊻ △최기정㊿ △최명의㊾ △한강현㊻ △현병무㊷ △현순도㊻ △황진호㊷ △황찬홍㊺
◆사대 △김영근㊽ △김창선㊶ △김항원㊺ △박성민㊿ △박종세㊺ △원혜영㊶ △이안기㊶ △조용복㊺
◆상대 △기병태㊸ △김대중㊻ △김연배㊹ △김창수㊽ △김철영㊿ △문성철㊹ △박병준㊶ △박진국㊼ △서주성㊹ △송우익㊶ △심재석㊹ △심재엽㊸ △우완식㊼ △우찬목㊺ △유석홍㊶ △윤종현㊹ △이국희㊻ △이만순㊼ △이상윤㊷ △이태형㊾ △진철평㊾ △한찬수㊹ △홍면후㊻
◆수의대 △정원공㊿
◆약대 △김광순㊾ △김태현㊶ △노동출㊽ △박사룡㊹ △배영일㊷ △서혜란㊿ △손인자㊾ △송상섭㊶ △심우원㊷ △오성환㊷ △이윤재㊾ △이형연㊼ △임연옥㊸ △최명식㊹ △허명권㊾
◆음대 △유행웅㊷
◆의대 △강진영㊼ △김연기㊽ △김재면㊹ △김중곤㊿ △성상철㊼ △위정일㊸ △이진호㊿ △조강희㊾ △조경환㊷ △황정운㊹
◆치대 △김인수㊼ △김종우㊶ △김홍석㊼ △남승우㊸ △민병덕㊹ △부삼환㊽ △손 근㊶ △오기돈㊶ △이희주㊼ △정용호㊺
◆대학원 △박종수㊼ △박종열㊶ △신종현㊶ △임장수㊷ △조태현㊾
◆경대원 △양승현㊶
◆행대원 △장준규㊺
◆환대원 △권 완㊻
◆AMP △이주현㊺ △정명섭㊾ △최윤신㊼
◆AIP △강봉기㉚ △서의석㉗ △위재곤㉗
◆ACAD △박찬국㊹ △신은우㊻ △이영태㊺ △최동규㊻ △황갑주㊽
◆ABP △박준명⑫ △이계용② △이삼희⑳
◆SGS △이창근①
◆HPM △김강회⑪ △송정순③
◆AIC △김광훈⑪
◆AFB △김규태① △허 찬③

일 반

◆인문대 △권기욱㊷ △김 영㊽ △김경일㊻ △김덕출㊶ △김형구㊸ △서노원㊶ △서형배㊹ △임채희㊹ △정용모㊸ △정제문㊷
◆사회대 △권영종㊶ △김동현㊺ △김민관㊼ △김범조㊹ △김희원㊾ △박상훈㊷ △박용현㊿ △박은경㊿ △박호준㊿ △송상종㊽ △송주현㊹ △어영강㊷ △오필환㊻ △위대선㊾ △유 연㊾ △이미영㊿ △이민호㊹ △이석원㊹ △이수형㊹ △이정현㊷ △이지현㊽ △이채정㊹ △이해인㊽ △임일섭㊸ △정 도㊻ △조영화㊿ △지청산㊷ △최이호㊿ △황병철㊷
◆자연대 △강석구㊾ △강태인㊸ △김준식㊶ △김형찬㊺ △문송기㊿ △박용진㊾ △박정민㊷ △박주현㊿ △박택곤㊾ △정동근㊹
◆간호대 △강명화㊹ △김기희㊺ △김채숙㊻ △안명희㊻ △정현명㊽ △홍정희㊻
◆경영대 △박계홍㊿ △방영민㊾ △이봉의㊹ △임기찬㊿ △채훈기㊾ △황순배㊼
◆공대 △강응순㊶ △강인권㊻ △강창수㊽ △강현석㊹ △고대영㊺ △권휘곤㊼ △김 권㊺ △김관식㊾ △김동국㊶ △김동철㊿ △김문기㊼ △김범수㊶ △김병준㊽ △김영균㊶ △김영석㊻ △김원경㊷ △김윤규㊾ △김을권㊾ △김의덕㊸ △김의석㊹ △김익훈㊻ △김종상㊻ △김진한㊿ △김철호㊷ △김태원㊾ △김홍만㊾ △김홍수㊻ △도복준㊷ △류세열㊻ △류인수㊽ △류지헌㊷ △문경섭㊷ △문동채㊺ △박성하㊻ △박영춘㊷ △박응준㊽ △박의납㊾ △박재범㊹ △박정수㊷ △박지빈㊸ △박진우㊿ △설상웅㊾ △손성주㊻ △송현택㊾ △송희국㊺ △신대승㊺ △신효순㊼

△안상순65 △안용수73 △안지환01
△양성호84 △양종화70 △오양섭81
△원경식77 △유송현99 △윤상로68
△윤영수47 △윤용균81 △윤용섭86
△윤주홍70 △이경근77 △이광진69
△이교상66 △이균철68 △이덕립58
△이동욱82 △이명원99 △이민수95
△이범철65 △이상룡76 △이상일97
△이상현71 △이상홍56 △이용주03
△이인원69 △이재남57 △이정우52
△이종욱92 △이중원94 △이진호85
△이호원97 △이화용70 △임건묵83
△임성수86 △임영빈91 △장동근55
△장석주82 △장홍규54 △전형준03
△정규철69 △정영근81 △정재호88
△정재훈97 △정진수67 △정충선65
△정학영78 △조건일62 △조영선63
△조정호65 △차원갑48 △최규식00
△최규헌90 △최용태68 △최호진78
△최홍석98 △하영식67 △한정빈63
△허영철70 △홍민표74 △홍재훈81
△황달연79 △황원섭98

◆농대 △김관선58 △김규식72
△김대경51 △김두식55 △김상철48
△김세장60 △김영길53 △김종무67
△김희장61 △남중희56 △노진표55
△민범식48 △박 호59 △박관식54
△박광훈52 △박재옥79 △박창서63
△박태식44 △백주영02 △변상균00
△변상지74 △송기덕55 △송기종54
△송종관52 △신동완50 △신인호88
△오근배56 △우병국75 △우종원66
△유석형58 △이경용53 △이경희54
△이계은55 △이계홍56 △이광희84
△이기춘46 △이상규55 △이영렬54
△이용준90 △이윤우53 △이인형56
△이재구58 △이종수68 △이중기55
△이진호57 △이창근58 △이태영54
△이홍복56 △임성빈57 △정동진01
△정재용79 △정진욱56 △최송웅60
△태용문82 △한상욱55 △허 홍49
△홍성택64

◆문리대 △곽호영66 △김규태53
△김기현52 △김동일58 △김석준44
△김찬수58 △문 용49 △박성환60
△박애주47 △박재우64 △박종민54
△박중규69 △배인하59 △변중섭48
△변창명56 △서남수71 △신섭중52
△신장효59 △안상경54 △안승원68
△안화영47 △어복선52 △염태호59
△윤임구61 △이 윤61 △이근남68
△이도영56 △이용식69 △이희택66
△장종하59 △전도율55 △정춘영50
△조창연61 △주혜경68 △최남준56
△최원우65 △최인일68 △홍경화54
△황의박63

◆미대 △김경수56 △김경애83
△김형진98 △남 철57 △두현영92
△박상민61 △안선영03 △안정훈00
△원묘희59 △윤영출82 △이기원51
△조용숙61 △차시은93 △현창민98

◆법대 △강기철48 △강형중84
△고민정98 △권선용73 △김 환81
△김정환57 △김종훈83 △김창국56
△김창희81 △나경식58 △류동균97
△문광삼70 △문택상50 △민재홍94
△박범석90 △박성진84 △박요찬81
△박재윤93 △박철우54 △백광균01
△변재승60 △손우창94 △양재식84
△염동희49 △오종권65 △오진환75
△유문억54 △유철환79 △윤금중48
△윤상목52 △윤정경55 △이규완53
△이범재58 △이상용67 △이상훈78
△이영환89 △이용관99 △이용희57
△이진우56 △이채주53 △이하우58
△이형진81 △임종식79 △임종헌78
△장구관76 △장상재55 △장주영82
△전승채02 △정규상82 △정덕모75
△정명택60 △정연상77 △정의식83
△정지태58 △정현국56 △조남현54
△조병선57 △조장혁90 △조현일82
△최강섭78 △최병덕72 △최완주77
△최주영86 △최춘기57 △최형준51
△추영일61 △태범식48 △하성대49
△한상태56 △함민식59

◆사대 △강양희57 △고준식51
△구양언60 △김병국59 △김성진53
△김순매40 △김주환64 △김한주79
△김혜인83 △박 훈02 △박상래52
△박완규80 △박지원45 △박찬주02
△박현수76 △변모은90 △손춘자69
△송인빈71 △신창호41 △신철지60
△심봉석60 △안광화63 △안흥숙62
△이계현72 △이광범92 △이달덕70
△이병선51 △이석천54 △이수창03
△이우복78 △이은비99 △이종순52
△이채규66 △이홍자70 △전래수52
△전승원99 △정두현60 △정상호67
△조익선40 △차완근67 △채미영82
△최길순49 △최만희57 △한상순46
△한주호52 △홍인기54

◆상대 △강경만54 △김 헌48
△김명수73 △김병기54 △김유일53
△김은수50 △김장현54 △김현주58
△남윤우60 △박명배64 △배선홍49
△손홍규51 △송용상56 △신동규69
△심소일49 △유병규54 △유병인58
△윤길현52 △윤여훈67 △이근석51
△이만수59 △이석순54 △이성열69
△이승로49 △이영세44 △이창준53
△이필곤59 △정상진49 △정영주59
△조선웅51 △조용해69 △조흡원64
△최봉석70 △최석철56 △최인학59
△최진재60 △한영국50 △한희영49

◆생활대 △김남미73 △박주희85
△신수영97 △신지식03 △정현우00
△한영숙56 △황덕순72

◆수의대 △김재하49 △명수남54
△문선창65 △서동일55 △이덕주60
△이문성60 △최흥일57 △홍소군01
△황인학49

◆약대 △강기훈64 △김성기63
△김지영99 △문현영02 △백덕우53
△서동화69 △우창도47 △이계준64
△이병현72 △이상모55 △이원재53
△이월희53 △정대인67 △최현주54
△추영구45 △한정연85

◆음대 △강진구71 △김성희75
△김영희53 △김현진92 △박성진02
△신혜주76 △엄미연96 △오동일54
△이선영86 △이종국59 △이혜정81
△임연우95 △정혜경00 △조길자62
△조위민59 △최지현98

◆의대 △강성섭66 △강조자62
△강진화80 △고병훈52 △고재준83
△김동수83 △김범용53 △김세엽70
△김종희50 △김찬옥47 △김창석85
△김희오89 △박건춘60 △박남진71
△박재홍80 △백종일83 △성송기90
△신미자59 △심성은91 △오세윤59
△이경욱58 △이기주85 △이덕수55
△이종혁55 △이학중52 △장준우87
△정태산53 △주영수84 △주원식76
△차명진01 △최 현74 △최관흠52
△홍성출89

◆치대 △고홍섭82 △구본석78
△김광빈59 △김광현52 △김교식72
△김규진81 △김기홍75 △김상천65
△김영권55 △김평일72 △노승학78
△민병무74 △박종천99 △백경동86
△석창인83 △신동인76 △안종경78
△여인호79 △오기환53 △오성진77
△윤대영51 △이건섭54 △이만희83
△이명호72 △이미대63 △이병윤53
△이봉호86 △이상봉53 △임종수81
△전훈식59 △조경석79 △조영선53
△최기채58 △최병식58 △최승훈81
△최진규87

◆대학원 △고바야시00 △김 신05
△김기옥05 △김남준93 △김문한79
△김석기03 △김영선04 △김인배68
△김준호86 △김진수83 △오형재79
△유근철03 △윤민재90 △이영민88
△조관형86 △최은정02 △최정진01

◆경대원 △서동홍72

◆보대원 △박상욱04 △박승기82
△서은하96 △송경섭69 △장지목77
△정건작87

◆사대원 △배기원67

◆신대원 △송경섭74

◆행대원 △고재윤82 △김재윤83
△박찬도66 △예재두78 △이용만66
△이준원87 △임의택83 △장승태61

◆환대원 △윤화일79 △이만형81

◆AMP △강성일62 △강정중63
△강제문42 △권혁중⑤ △김 반46
△김승유19 △김인상57 △김장규58
△김재희63 △김현수24 △박병일62
△백문현25 △송원중63 △송진환61
△안병일53 △원동혁16 △유병운23
△유시수25 △유재열35 △이강남44
△이기종43 △이시원41 △이원복47
△이태섭⑤ △이호수35 △임종순54
△장남진48 △정병호17 △정상태36
△정환진47 △조내벽31 △조창식47
△천광찬28 △최교진62 △최영철20
△최용묵53 △최종명14 △홍동표38
△홍연우54 △홍종대④

◆AIP △강용석23 △강인순⑨
△공소열13 △권경이34 △김숙형37
△김영선② △김주곤③ △박대천15
△박종우⑥ △신상열36 △유각목⑤
△유인목32 △윤재영36 △이병희⑤
△이복근12 △이봉훈36 △이천우13
△정두영32 △황기인10 △황혜진22

◆ACAD △김기호63 △박권섭56
△박기철39 △박성득20 △방일홍⑤
△서정도35 △심기보64 △양창식③
△여익구59 △이교용40 △이필우33
△이희수21 △최봉인31 △최수근51

◆ABP △권석만30 △김광호⑨
△김원현⑥ △박대영30 △박석현30
△박인규10 △박충호30 △배상환30
△심형보16 △안시형30 △유영철29
△이기범⑤ △전안희20

◆SGS △김권욱17 △민상금①
△박정희13 △전우대②

◆APC △강영원⑦ △김형락③
△박기정③ △오득환①

◆HPM △김진국16 △김홍구12
△배영봉14 △정중희16 △조경순12
△최낙원16 △한성길16

◆AMPP △김용태⑦ △류귀식⑦
△정태길⑦

◆AIC △김양하23 △송용팔①
△임종국④

◆AMPFRI △김병문17 △김종은19
△송희순20 △윤한교② △이열종①
△전영일② △조형찬11

◆iIP △신재섭② △신중구④

◆GLP △곽창근③ △유형숙15
△하철수11

◆ALP △권동환② △김광주②
△김기식⑤ △민주식⑤ △안종만③
△이기욱⑥ △허영호④

분 담 금

◆오스트리아지부 500달러

1·2월 계 :	199,327,790원
평생회비 :	132,800,000원
입 회 비 :	1,080,000원
총 계 :	332,450,170원